

2012-PR-10

서울시 초등학교 방과후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 사례

A Case Study of After-school Education
on Arts and Sports

백선헤 노은이 이해숙

서울시 초등학교 방과후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 사례

A Case Study of After-school Education on Arts and Sports

2012



■ 연구진 ■

연구책임	백 선 혜 • 기획조정본부 기획팀장
공동연구	노 은 이 •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이 혜 숙 •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원	김 소 은 •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이 연구는 문화예술체육(이하 문예체) 교육이 갖는 사회통합 기능이나 문화의 양극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교육 내 문예체 교육의 운영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방과후 문예체 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나 정규 교과시간과 특별 활동시간만으로 학생들의 취미와 특기를 개발시키기에는 시간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 각자가 타고난 취미나 특기를 수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이 자율화되면서 교과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교육 양극화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을 목적으로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이 가동된다면 설립취지를 보다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방과후학교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학교 개설 강좌에 대한 선호도를 예측할 수 없어, 강사비 보존을 위해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이 집중 개설되고 있다. 둘째, 방과후학교 운영자체에 행정소모가 너무 많다. 셋째, 외부강사 선정 시 신원보증에서부터 강의 질에 이르기까지 강사수급에 어려움이 많다. 넷째, 예산 지원 주체가 너무 많아 학사일정에 맞춰 지원받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방과후학교의 질적인 부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문예체 교육은 교사들의 관심 밖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교실의 경우 주된 기능이 보육이기 때문에 문예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결국엔 학교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문예체 교육 기능을 확대하고자 여러 지원책을 운영 중인 기관으로 성북구와 강남구, 서울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등이 있다. 성북구는 2012년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방과후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구내 4곳에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는 ‘방과후학교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확대’를 구청장

공약 및 구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전국 1위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며 학부모, 학생 모두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돌봄교실 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초등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에 TA(Teaching Artist : 전문예술교육가)를 파견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교육하고 있다. 또한 공연 형태의 다양한 놀이 형식을 통한 연계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의 발현을 유도하는 집중 통합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인 호기심 예술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구로문화재단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연극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의 다문화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공급에 힘쓰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있다. 행복한학교재단은 공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운영 중이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는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을 통해 설립된 성균희망교실 Oh!늘 등도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해 방과후 문예체 교육 운영사례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예체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입시위주의 현 교육환경이 갖는 한계에 공감하고, 스스로 보고 느끼며 배우는 문화감수성이야말로 가장 개성적인 상상력의 기초가 되며, 이것이 문화경쟁력의 밑거름이 된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문예체 교육은 문화자본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학교교육을 통한 문예체 교육 역시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 형성된 문화자본이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이 문예체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문예체 교육자원과 방과후 교육 매칭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문예체 교육은 전문성을 특히 요구하며, 방과후 교육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안적 문예체 교육을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과 방과후 교육이 접목된다면, 방과후 문예체 교육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양한 문예체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기관들을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공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칭시스템은 정보 제공과 연계 시스템의 두 축으로 각 구청에서 구축하도록 하고, 서울시는 기술적, 행정적 측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① 수혜자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② 학생

의 안전권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③ 다양한 사업주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창구 마련, ④ 방과후학교 강사 및 돌봄교실 강사 인력풀 운영, ⑤ 학교상황을 고려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⑥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상 이 연구를 통해 파악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실태와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예체 교육 운영사례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토대로 공교육에서의 문예체 교육 지원 방안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내용	6
제2장 서울시 초등 방과후 교육 현황	9
제1절 방과후학교	9
1. 방과후학교의 개념	9
2.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 현황	12
제2절 돌봄교실	15
1. 돌봄교실의 개념	15
2. 돌봄교실 현황	16
제3절 방과후학교 지원 기관	19
1. 구청	20
2.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28
제4절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37
1. 방과후학교	37
2. 돌봄교실	42
제3장 서울시 문예체 교육 운영사례	47
제1절 서울시 문예체 교육 지원정책과 방과후 교육	47
제2절 방과후학교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 사례	50
1.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돌봄교실 지원 사업	50
2. 호기심예술학교	55
3. 다문화제고 교육연극	58
4.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사업	63

제4장 방과후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의 시사점71

1. 문예체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71

2. 문예체 교육자원과 방과후 교육 매칭시스템 운영72

3.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제언75

참고문헌81

표 목 차

〈표 1-1〉 맞벌이 가구 현황	3
〈표 1-2〉 한부모가정 현황	4
〈표 2-1〉 우리나라 방과후 교육의 형태별 운영현황	10
〈표 2-2〉 방과후학교 변천과정	11
〈표 2-3〉 방과후학교 정책목표	11
〈표 2-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13
〈표 2-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용별 운영 현황	13
〈표 2-6〉 민간위탁프로그램	14
〈표 2-7〉 방과후학교 강사 구성 현황	14
〈표 2-8〉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	15
〈표 2-9〉 초등 돌봄교실 운영학교 수	16
〈표 2-10〉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 유형1	17
〈표 2-11〉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 유형2	17
〈표 2-12〉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대별 운영 교실 수 및 참여 학생 수(2010년 6월)	18
〈표 2-13〉 초등 돌봄교실 학년별 참여 학생 수(2010년 6월)	18
〈표 2-14〉 초등 돌봄교실 토요일업일 및 방학 중 운영현황(2010년 6월)	18
〈표 2-15〉 초등 돌봄교실 학년별 참여 학생 수(2010년 6월)	19
〈표 2-16〉 초등 돌봄교실 위탁운영 현황(2010년 6월)	19
〈표 2-17〉 강남구청 운영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6
〈표 2-18〉 (재)행복한학교 설립현황	28
〈표 2-19〉 행복한학교재단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	32
〈표 2-20〉 강사의 범위 및 자격	34
〈표 2-21〉 강사 연수프로그램	35
〈표 2-22〉 성균희망교실 Oh!늘 교육 프로그램	36
〈표 2-23〉 동남권 Y초등학교 돌봄교실 하루생활 계획	44
〈표 3-1〉 서울시교육청 문예체 관련 교육정책	47
〈표 3-2〉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구성 및 프로그램	48
〈표 3-3〉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돌봄교실 지원 사업 개요	52
〈표 3-4〉 호기심 예술학교 개요	58

그림 목 차

〈그림 2-1〉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변화	16
〈그림 2-2〉 사회적기업 선정 절차	30
〈그림 2-3〉 행복한학교재단 운영모델	31
〈그림 2-4〉 행복한학교재단 홈페이지	33
〈그림 3-1〉 우리동네오케스트라 용산 입학식	65
〈그림 3-2〉 주한미국대사관 & 드림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66
〈그림 3-3〉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강사워크숍	66
〈그림 3-4〉 다문화가정 어린이 오케스트라 중간발표회	67

제1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미래사회는 더 이상 정보와 지식만이 중요한 사회가 아니라 꿈과 감성이 중요시되는 사회로 지식·창의력·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에 대한 요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교육을 제외한 문화예술체육(이하 문예체) 교육 경험률은 7.7%(문화관광부, 2006)에 그쳐 국민들의 문예체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 교육 경험의 필요성이 크게 부족하다. 때문에 교과중심의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문예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문예체 교육의 사회통합 기능이 강조되면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의 양극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문예체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윤진, 2011, p 19).

이러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방과후학교의 문예체 교육은 다음과 같은 요구에 직면해있다.

첫째, 방과후학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2011년 6월 기준으로 유배우 가구는 1,162만가구로 추정되며, 이 중 맞벌이가구는 507만가구로 유배우가구의 43.6%를 차지한다. 이는 학교의 기능이 교육의 기능에서 보육의 기능으로 확대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때문에 방과후학교의 사회적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1〉 맞벌이 가구 현황

(단위 : 만 가구)

시·도	유배우가구	맞벌이가구			
			비율(%)	동거	비동거
합 계	1,162	507	43.6	464	44
서울	222	87	39.0	79	8

출처 : 통계청, 2011,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 결과

또한 통계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은 2005년 39만명에서 2010년 4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자녀 보육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2012년 현재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설치한 상태이다.

〈표 1-2〉 한부모가정 현황

	2005	2010
	2세대가구(부부+한부모)	2세대가구(부부+한부모)
합계	394,632	404,629
15세 미만	0	0
15~19세	233	355
20~29세	14,582	12,818
30~39세	26,679	31,795
40~49세	53,054	45,343
50~59세	104,588	114,800
60~69세	76,327	76,388
70세 이상	119,169	123,130

출처 :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전수부문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보육의 기능만 하고 있거나, 과외 수업을 원할 경우 방과후학교를 들락거려야 하여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특화된 몇몇 학교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은 외부 교육기관에 의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돌봄교실의 기능 및 역할이 더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문예체 교육의 순기능, 즉 사회통합, 전인적 인격 형성, 삶의 만족도 증대 등이 갖는 긍정적 효과가 여러 차원에서 입증되고 있다. 창의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문예체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 교과과정에서의 문예체 교육의 한계로 인해 일선학교에선 방과후학교에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방과후학교 사업은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인적자원 육성,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문예체 교육은 학교 내 교육자원 부족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별·지역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의 지원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한계에 직면했다. 서울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재단은 다양한 계층의 문화향유 확대 및 다문화, 학교폭력 등 사회적 이슈의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높은 호응도에 비해 사업의 확장 속도는 빠르지 않은 편이며,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한계점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예체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리 높지 않으며, 방과후교육 내에서도 문예체 교육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실태를 문예체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예체 교육 운영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과후 학교의 문예체 교육 비중이 가장 높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 방과후학교 문예체 교육의 정책지원 현황은 어떠한가?
- 서울시 방과후학교 문예체 교육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방과후학교 문예체 교육의 효과적 운영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서울시 방과후학교 문예체 교육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제2절 연구 범위 및 내용

1. 연구 범위

초등학교의 문예체 교육은 정규 교과과정,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토요문화학교 등에서 진행된다. 이 중 정책적으로 다양한 문예체 교육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로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제한하였다. 토요문화학교는 중요성과 관심이 높으나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 초기 단계라 연구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만 하더라도 문예체 교육의 주체와 프로그램들은 매우 다양하여 그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히 예산지원 주체는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구청, 지역단체 등으로 다양하였다. 또한 이를 시행하는 주체인 초등학교의 여건도 제각각이어서 일반화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의 사업에 대한 큰 흐름만을 파악하고, 초등학교 교사 및 관련 단체 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문예체 교육 실태를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2. 연구 내용

문예체 교육의 기능 및 효과, 중요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시 문예체 정책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서 시행 중인 문예체 관련 교육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문예체 교육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각각의 운영 형태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참관수업, 사례조사,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운영 상태와 애로사항 등을 수집하였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였으며, 서울시 담당자와 정책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행복한학교재단 및 성균희망교실오늘 관계자를 인터뷰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실태를 알아보았으며, 서울문화재단, 강남구청, 구로아트벨리, 한강초등학교, 자운초등학교, 목동초등학교, 언주초등학교, 용마초등학교 등의 관계자 인터뷰와 참관수업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문예체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수집,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제2장 서울시 초등 방과후 교육 현황

제1절 방과후학교

제2절 돌봄교실

제3절 방과후학교 지원 기관

제4절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제2장

서울시 초등 방과후 교육 현황

제1절 방과후학교

1. 방과후학교의 개념

방과후학교란 미래사회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창의적이고 심신이 건강한 인재 육성을 위해 현행 방과후 교육활동의 운영관리, 지도강사, 교육대상, 교육비, 교육장소, 운영시간, 프로그램을 확대·개방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체제(교육인적자원부, 2006)를 말한다. 방과후학교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을 통합하여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 초·중등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학교장 중심, 현직교원 중심, 본교 재학생 위주, 본교 시설 위주인 반면, 방과후학교는 다음 네 가지 면에서 이와 다르다. ① 운영주체는 학교장, 대학,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확대, ② 지도강사는 현직교원, 전문가, 학원강사,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다양화, ③ 교육대상은 타교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까지 점진적 확대, ④ 교육장소는 인근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활용 극대화 등이 그것이다.

방과후학교는 각급 학교에 따라 단계별 목표를 정하였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1~3학년은 방

과후 보육 및 교육 욕구 해소, 4~6학년은 특기적성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학생 보살핌, 청소년 보호 선도,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인성, 창의성, 특기 개발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되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강사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단위학교에서 인정하는 모든 현직 교원과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가용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서 강사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표 2-1〉 우리나라 방과후 교육의 형태별 운영현황

주무부처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보육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근거법	교육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담당교사	유초중등교사 보육교사	생활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대상아동	초중고 일반아동	18세 미만의 아동 저소득층 아동 우선	초등학생	초4~중2
운영주체	시·도 및 지역교육청 학교장 위탁운영	개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개소(명)	11,160개 (4,395,451명) 2009년 10월 기준	3,474개 (97,926명) 2009년 12월 기준	554개 (8,075명) 2009년 12월 기준	171개 2010년 6월 기준
비고	확충	확충 2004년 국고지원 시작	확충계획 중지	2005년 시범운영

출처 : 초등학교보육교사연합회, 2011, 초등 보육(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p15~16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에 따라 2003년까지 특기적성교육 등 방과후 교육활동이 운영되었고,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 수준별 보충학습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05년 3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운영하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방과후학교가 4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06년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표 2-2〉 방과후학교 변천과정

1997~2003	2004	2005	2006~2007	2008
특기·적성 교육 등 방과후 교육 활동 운영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방과후학교 도입확대 초·중·고 48개교	자율성·다양성·개방 성을 확대한 교육체제인 “방과후학교” 도입확대	-사업 지방이양 및 교과부 계획 폐지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 확대
↑	↑	↑		↑
1995. 5. 31 교육개혁안	2004. 2. 17 사교육비 경감대책	2005 연구학교 운영		2008. 4. 15 학교자율화

※ 자료 : 교육기술부(2008), 아동청소년백서.

방과후학교는 「방과후학교에서 누구나 최고의 다양한 학습을」이라는 비전하에 ‘학교 교육기능 보완’,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 실현’, ‘학교의 지역사회화’라는 4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표 2-3〉 방과후학교 정책목표

목표	추진내용
학교 교육기능 보완	- 정규수업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학습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잠재력 개발 및 인성·창의성 신장
사교육비 경감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
교육복지 실현	-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학교의 지역사회화	- 지역사회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학교를 통한 평생학습 기반 구축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및 지자체·대학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 자료 : 교육기술부(2008), 아동청소년백서.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되, 인접 대학이나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는 수요 조사와 프로그램 개설 운영 및 평가 등을 총괄한다.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나치게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한다. 교육대상은 해당 학교의 학생뿐 아니라 타교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성인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교육장소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전인 교육의 차원에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의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정규 교과시간과 특별 활동 시간만으로 학생들의 취미와 특기를 개발시키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므로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 각자가 타고난 취미나 특기를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교는 교육의 장으로서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자기의 소질과 잠재 능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생기있고 발랄한 학교 생활을 누리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정규교과 과정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아동의 취미활동, 특기교육 등을 방과후학교를 통해 실시하고 이러한 특기 적성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박은숙, 2008).

2.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 현황¹⁾

서울시의 초등학교 수는 총 535,948명(2011년 10월 현재)이고,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수는 305,829명으로 전체의 57.1%에 이른다²⁾. 하지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은 시·도별로 집계 이루어지지 않아 이 보고서에서는 전국적인 현황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그 추세를 보고자 한다.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수는 교과 프로그램 338,891개, 특기·적성 프로그램 156,074개 등 총 494,965개이며, 2007년 이후 교과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1)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 2010년 발간한 아동청소년백서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12년 서울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담당부장과 인터뷰 내용을 참조하여 재구성함.
- 2) 서울시 초등학교는 전체 593개교(20,068학급) 535,948명의 학생과 28,604명의 선생님과 구성되어 있다. 설립별 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 2개교, 공립 551개교, 사립 109개교로 구성되어 있음(서울특별시 교육청, 2012년 1월 1일 현재).

학교수(교)	학급수(개)	학생수(명)	교원수(명)	설립별 학교수(교)		
				국립	공립	사립
593	20,068	535,948	28,604	2	551	109

지역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서부교육지원청(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에 초등학교 71개교, 65,140명으로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이 있음. 반면 중부교육지원청(용산구, 중구, 종로구)은 41개교, 24,973명으로 학교 수와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역임.

〈표 2-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단위 : 개,%)

구분	특기·적성 프로그램		교과 프로그램	
2007. 10	90,813	57.0	68,403	43.0
2008. 10	112,805	49.0	117,534	51.0
2009. 10	124,581	43.6	161,348	56.4
2010. 10	156,074	31.5	338,891	68.5

※ 자료 : 교육기술부 내부자료, 201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내용별 강좌 비중을 살펴보면 영어 16.2%, 수학 13.5%, 국어 12.1% 순으로 이 세 과목이 전체 강좌의 41.8%를 차지한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컴퓨터 18.3%, 영어 13.5%, 음악 13.0%, 미술 12.2% 순으로 예체능 프로그램이 전체의 57.0%에 달한다. 이처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는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비중이 더 높으나, 2008년부터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발이 자율화되면서 교과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저학년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수강을 유도하고 있으며, 고학년은 중고등학교 선행학습과 관련한 강좌들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의 교과 프로그램은 외부위탁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반면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은 민간이 시설을 구비하고 들어와 100% 외부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다.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시설만 학교에서 제공하고, 강사관리와 프로그램 관리까지 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표 2-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용별 운영 현황

(단위 : %)

구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제2외국어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기타	계
초등학교	7.6	0.5	8.2	7.4	13.5	2.3	18.3	13.0	12.2	8.5	8.6	100
2010	14.5	10.6	17.7	12.1	17.5	1.4	6.3	5.2	4.3	4.5	5.9	100
2009	11.7	7.5	14.8	9.9	16.2	2.3	8.7	7.0	5.7	5.9	10.3	100
2008	11.8	7.8	13.1	10.3	15.9	3.0	9.5	7.5	6.0	6.3	8.8	100
2007	13.8	5.9	11.1	8.6	13.0	3.6	8.2	8.2	6.9	7.5	13.2	100

※ 자료 : 교육기술부 내부자료, 2012

초등학교 저학년은 안전문제로 인해 방과후학교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체적으로는 민간위탁 프로그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민간위탁프로그램

구분		초등학교	과년도 현황			
			2010	2009	2008	2007
학교수* (비율, %)		2,234 (38.0)	2,659 (23.7)	3,073 (27.5)	1,209 (10.9)	1,907 (17.4)
프로그램 수 (비율, %)	소계A	26,934 (13.4)	29,880 (6.0)	12,960 (3.5)	4,759 (2.0)	3,966 (2.3)
	영리기관B(B/A)	20,235 (75.1)	20,868 (69.8)	8,564 (66.1)	120 (2.5)	-
	비영리기관C(C/A)	6,699 (24.9)	9,012 (30.2)	4,396 (33.9)	4,639 (97.5)	3,966 (100)

※ 참고 : 2009년 이전까지는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 위탁 학교 수의 단순 합계임(실제 위탁 학교 수보다 과다 집계 가능성 있음)

※ 자료 : 교육기술부 내부자료, 2012

특기·적성 강좌의 강사 구성은 현직교사가 33.7%, 외부강사가 66.3%로 외부강사의 비율이 높으며, 그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반면 교과 강좌는 현직교사가 87.8%, 외부강사가 12.2%로 현직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 역시 외부강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표 2-7〉 방과후학교 강사 구성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과년도 현황			
			2010	2009	2008	2007
교과 프로그램 (A)	현직교원 수(명)	150,956	154,309	121,794	93,829	78,130
	D(D/F)	(83.5)	(87.8)	(90.2)	(92.3)	(92.5)
	외부강사 수(명)	29,906	21,423	13,177	7,810	6,350
	E(E/F)	(16.5)	(12.2)	(9.8)	(7.7)	(7.5)
	소계	180,862	175,732	134,971	101,639	84,480
	F(A/C)	(61.4)	(63.9)	(61.6)	(54.5)	(49.1)
특기적성 프로그램 (B)	현직교원 수(명)	38,368	30,522	27,453	27,640	29,507
	G(G/I)	(33.7)	(30.8)	(32.6)	(32.6)	(33.7)
	외부강사 수(명)	75,382	68,588	56,733	57,169	58,034
	H(H/I)	(66.3)	(69.2)	(67.4)	(67.4)	(66.3)
	소계	113,750	99,110	84,186	84,809	87,541
	I(B/C)	(38.6)	(36.1)	(38.4)	(45.5)	(50.9)
계(C)		294,612	274,842	219,157	186,448	172,021

※ 자료 : 교육기술부 내부자료, 2012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수강 강좌 수는 2.1개이며, 월 부담액은 약

27,000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구분	학 생	학 부 모
2011	82.0	79.2
2010	80.6	78.0
2009	78.4	73.7
2008	77.6	74.6
2007(하)	74.7	73.1

※ 주 : 2008년 11월말 기준, 시·도교육청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학생 42만명, 학부모 38만명)

※ 자료 : 교육기술부 내부자료, 2012

제2절 돌봄교실

1. 돌봄교실의 개념

자녀양육 기능은 출산율 저하 및 취업모 증가, 여성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사회의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영유아로만 한정되었던 보육 개념도 점점 더 확대되어 아동에까지 연장되기에 이르렀다(양윤이·송대영, 2009).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증가뿐만 아니라, 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그리고 저출산과 맞물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유휴교실 활용을 목적으로 초등 보육프로그램이 권장·운영되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1996년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가 행정청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서울 상암초등학교와 안산초등학교에 처음 설치, 운영되었다. 이후 행정청, 시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 복지학교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 방과후학교, 에듀케어 교실, 보육프로그램, 보육교실 등의 이름을 거쳐 2011년 현재 초등 보육교실과 종일 돌봄교실을 합친 개념으로 「초등 돌봄교실」이란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신운정, 2012, 초등보육 뉴스레터 p.10).

초등 돌봄교실 운영학교와 학급수를 보면, 운영학교는 2004년 430개교(한국교육개발원, 2005)에서 2007년 2,275개교(2,491개 학급)로 늘었고, 학급수도 2008년 3,784개 학급, 2009년에는 4,338개 학급, 2010년에는 4,560개 학급, 2011년에는 4,646개 학급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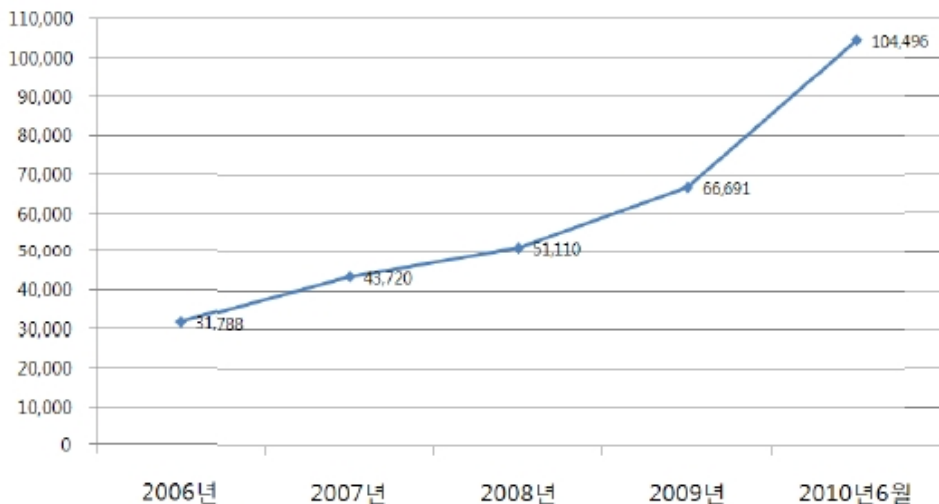
〈표 2-9〉 초등 돌봄교실 운영학교 수

2009년			2010년			2011년		
학교수	누계	설치율	학교수	누계	설치율	학교수	누계	설치율
227교	227교	41.7%	162교	389교	71.4%	156교	545교	100%

※ 출처 :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2년 1월

2. 돌봄교실 현황³⁾

2010년 6월 현재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은 총 104,496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3.2%이다. 이는 전년 10월 학생 수(66,691명)에 비해 37,805명이 증가한 것이며, 비율도 1.9%에서 3.1%로 1.2%가 늘어났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초등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 31,788명에서 2010년 6월 104,496명으로 4년 동안에 329%가 증가하였다.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p.31.

〈그림 2-1〉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변화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 유형을 보면, 맞벌이가정 자녀가 전체의 62.3%,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의 12.7%로 나타났다. 돌봄교실 설치 이후 맞벌이가정 자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3)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0년 발간한 방과후학교 질적수준 제고 방안의 내용과 서울시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담당부장 및 보육교사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수강료 부담유형을 보면, 전체의 65.2%가 전액 무료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전액부담은 27.0%, 일부부담은 7.8%로 조사되었다.

초등 돌봄교실 수강료를 내는 학생들은 월 평균 31,178원을 납부하였고, 그 중 학생들의 월 부담액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여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액부담은 월 평균 33,524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10〉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 유형1

(단위 : 명, %, 원)

유형	생활수준			계	부담유형			계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가정	기타		전액부담	일부부담	전액무료	
학생수	13,287	65,116	26,093	104,496	28,191	8,138	68,167	104,496
비율	12.7	62.3	25.0	100.0	27.0	7.8	65.2	100.0
월평균부담액	-	-	-	31,178	33,524	23,042	-	31,178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방과후학교 질적수준 제고 방안, p.32.

돌봄교실 참여 학생 유형2는 학생이 전액부담이나 일부부담, 전액무료로 하는 경우에 재원을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자유수강권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중은 매우 낮았으며(12.7%), 기타 재원으로 무료로 듣는 학생들이 많았다(53.5%).

〈표 2-11〉 초등 돌봄교실 참여 학생 유형2

(단위 : 명, %, 원)

비고	전액 부담	일부부담				전액무료				총계
		자유 수강권	기타 지원	중복 지원	계	자유 수강권	기타 지원	중복 지원	계	
학생수	28,191	1,090	6,655	393	8,138	12,239	52,271	3,657	68,167	104,496
비율	27.0	1.0	6.4	0.4	7.8	11.7	50.0	3.5	65.7	100.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p.32.

2010년 6월 현재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조사한 결과, 18시까지 운영한다고 응답한 학급 수가 38.3%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7시까지 운영하는 학급 수도 31.0%로 높았다. 다음으로 19시까지 12.5%, 21시까지 10.3%로 나타났다. 21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학급 수는 0.3%에 불과하였다.

한편, 운영시간대별 참여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17시까지 참여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46.9%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18시까지 22.9%, 16시까지 18.2%, 19시까지 5.8%로 나타났다.

〈표 2-12〉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대별 운영 교실 수 및 참여 학생 수(2010년 6월)

(단위 : 개, 명, %)

시간	9시이전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1시~	계
교실수	52	241	1,919	2,373	778	179	640	18	6,200
비율	0.8	3.9	31.0	38.3	12.5	2.9	10.3	0.3	100.0
학생수		19,061	48,971	23,925	6,072	2,878	3,460	129	104,496
비율		18.2	46.9	22.9	5.8	2.8	3.3	0.1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p.33.

학년별 참여 학생 수를 보면, 1학년이 4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2학년 33.3%, 3학년 10.4%로 나타났다. 4~6학년 학생은 9.1%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돌봄교실 참여대상 학생을 저학년인 1~3학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돌봄교실의 정원은 일반적으로 20명 선이었으며, 돌봄교실이 개설되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표 2-13〉 초등 돌봄교실 학년별 참여 학생 수(2010년 6월)

(단위 : 명, %)

학년	1	2	3	4	5	6	계
학생수	49,356	34,745	10,834	4,637	2,661	2,263	104,496
비율	47.2	33.3	10.4	4.4	2.5	2.2	100.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p.34.

토요휴업일 운영 현황을 보면, 돌봄교실 운영학교 중 13.5%가 토요휴업일에 운영을 하며, 돌봄교실 참여학생의 6.2%가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돌봄교실 운영학교 중 73.9%가 방학 중에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교실 참여학생 중 66.8%가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수업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토요 돌봄교실의 양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었다. 보육위주의 기존 모습에서 벗어나, 토요문화학교 등의 프로그램과 결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학교는 당직교사의 수를 늘리고 있었다.

〈표 2-14〉 초등 돌봄교실 토요휴업일 및 방학 중 운영현황(2010년 6월)

(단위 : 명, %)

학년	토요휴업일			방학		
	운영학교 수	운영교실 수	참여학생 수	운영학교 수	운영교실 수	참여학생 수
수	700	791	6,492	3,826	4,482	69,810
전체수	5,177	6,200	104,496	5,177	6,200	104,496
비율	13.5	12.8	6.2	73.9	72.3	66.8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p.34.

2010년 6월 현재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참여하는 인력은 총 11,555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현직교원 수는 32.8%(3,785명), 외부강사는 67.2%(7,770명)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 인력을 전담인력과 보조인력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전담인력이 68.5%(7,920명), 보조인력이 31.5%(3,635명)로 조사되었다. 현직교원 중에서는 전담인력이 60.0%, 외부강사 중에서는 전담인력이 72.7%를 차지하였다.

〈표 2-15〉 초등 돌봄교실 학년별 참여 학생 수(2010년 6월)

(단위 : 명, %)

학년	현직교원			외부강사			총계				
	전담	보조	계	전담	보조	계	현직교원	외부강사	전담	보조	계
수	2,270	1,515	3,785	5,650	2,120	7,770	3,785	7,770	7,920	3,635	11,555
비율	60.0	40.0	100.0	72.7	27.3	100.0	32.8	67.2	68.5	31.5	100.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p.35.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6,200개의 교실 중 학교장 직영교실이 99.2%(6,152개실), 위탁교실이 0.8%(48개실)로 나타났다. 거의 대부분이 학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돌봄교실의 운영 형태는 학교장 재량에 크게 좌우되고 있었다.

〈표 2-16〉 초등 돌봄교실 위탁운영 현황(2010년 6월)

(단위 : 개, %)

학년	학교직영	위탁운영	교실수 계
교실수	6,152	48	6,200
비율	99.2	0.8	100.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방과후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p.36.

제3절 방과후학교 지원 기관

현재 방과후학교는 학교별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중앙정부부처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형태는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일반화가 어렵

다. 이 절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지원기관 중 자치구 및 사회적기업의 지원 현황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구청

1) 성북구청 : 꿈나무 키우미 돌봄센터

서울 성북구는 2012년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방과후 돌봄센터를 설치하였다. 성북구는 길음동 꿈나무 키우미 돌봄센터를 시작으로 석관동, 성북동, 월곡동 등 4곳에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를 설치하였다.

기존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자치구가 협조·지원하게 된 것이다. 기존 지역아동센터는 운영규정상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돌보도록 되어 있으나, 성북구는 조례 제정(2011년 12월 31일)을 통해 소득 구분 없이 맞벌이 가구(한부모 가정 포함)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소득계층 구분 없음)으로 돌봄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수가 6천 800여명이지만 구내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천 500여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북구는 저소득층 위주인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소득 구분 없이 어린이를 모집하고 있다. 행정이 양육비를 보조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공적 체계를 갖춘 시설을 도입했다는 면에서 기존의 육아 정책과 차별화되고 있다.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기본으로 특기 적성 개발, 방과후 학습, 문화체험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구가 직접 운영한다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차이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만 보조될 뿐 공적인 돌봄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고, 학교도 이미 역할 면에서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꿈나무 키우미 돌봄센터는 조례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조례에는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규정되어 있다.

꿈나무 키우미 돌봄센터는 49명의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역 교회의 1개층 전

체를 장기 임대해 시설비를 절감하고 있다. 석관동 돌봄센터는 성북구가 매입한 단독주택에 마련되었으며, 성북동과 월곡동 돌봄센터는 청소년 공부방을 리모델링해 설치하였다. 성북구는 학교와 네트워크 구축, 아동상담·실태조사 등을 담당할 성북구 아동관도 건립해 지역사회와 함께 어린이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성북구는 돌봄센터 및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다.

또한 성북구는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아동돌봄시설에서 수용하지 않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동 보호와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성북구는 나아가 전국 최초로 구립 돌봄센터, 민간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청소년 공부방 등 지역 내 아동돌봄서비스 제공 시설들의 허브 역할을 맡을 성북구 아동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즉 현재 가압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성북구 아동관으로 리모델링하여, 관장을 포함한 6명의 관리 인력이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과 연계해 학교와 통합네트워크 구축, 아동상담, 아동실태조사, 방과 후 교육 등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성북구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2011년에 확보했으며 세부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11년 12월에 완료해 공적 돌봄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성북구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성북구, 주민들 큰 호응

서울 성북구의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가 문을 연 지 두달여 만에 문전성시다. 선착순 50명에 들지 못한 대기자들까지 몰려 있다. 이곳은 소득 조건 등을 따지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맞벌이 가정이면 누구라도 방과후 어린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 2월 문을 열었다. 지난 20일 오후 맞벌이 부모의 칭찬세례를 받는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를 찾았다. 길음동 정인교회 1층에 위치한 이곳에 들어서자 어형준군(7·송덕초 1년)이 담임 선생님에게 어리광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학교에서 야구했더니 뼈가 부서질 것 같아요.” “그랬어? 힘들었겠네. 영어 수업은 이따가 들어가고 어서 좀 쉬어.” 형준군은 테이블에 앉아 수수깡을 붙잡고 물고기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다. 교실 안에서 종이접기를 하는 아이들, 책을 빼들고 앉아 읽는 아이, 친구와 장난치는 아이들로 센터는 부산스러웠다.



성북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문을 연 구립 ‘꿈나무 키우미 돌봄센터’에서 20일 초등학교 학생들이 미술수업 시간에 만들기를 하고 있다.

50명 정원의 이 돌봄센터에는 총 14명의 선생님과 교실 4개가 있다. 3명은 담임교사로 나머지는 과목별 전문강사다. 성북 돌봄센터는 단순 돌봄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학습까지 책임진다. 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학교 수업을 보완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담임교사는 각각 1학년, 2·3학년, 4·5·6학년을 맡아 수업 외 시간에도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체육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교과목 외에 미술, 피아노, 서예, 한자, 배드민턴, 밴드 등 활동마다 전문강사가 있다.

오후 수업 후에는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이동언양(12·길원초 6년)은 “학교보다 센터에서 먹는 밥이 더 맛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영아씨도 “유기농 위주로 식사를 챙겨 주고, 간식도 과일 등 자연식을 주니 엄마 입장에서 마음은 놓인다”고 전했다. 매일 1~2시간의 수업을 마치면 나머지는 아이들의 자유 시간이다. 교회 지하 1층 체육관에서 아이들은 피구, 줄넘기,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토요밴드는 돌봄센터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다. 30여명의 아이들이 전문강사 5명의 지도를 받으며 드럼, 일렉·베이스 기타 등을 배운다. 형준군은 드럼을 맡았다. 오는 어린이날에는 성북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다. 양희정 센터장(42)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와 습관을 만들어주면서 사교육비 절감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일에는 오후 1시부터 8시, 토요일에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돌봐주고, 이용료는 월 5만원이다. 성북구는 오는 6, 7월과 하반기에 돌봄센터 3곳을 더 개관할 계획이다. 정원은 각각 29명, 19명, 40명 규모다. 성북구 관계자는 “장소를 무상 임대해주는 지역사회의 기부와 구의 복지사업 기획이 잘 맞아 떨어져서 적은 예산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출처 : 경향신문 2012년 4월 22일자

[구립 “삼선동 및 석관동 꿈나무키우미 돌봄센터” 이용아동모집 공고]

- 모집인원 : 삼선동 35명, 석관동 19명
- 접수기간 : 2012. 8. 21(화) ~ 8. 28(화) 10:00~18:00
- 접수대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가구(한부모가정 포함)의 초등학교 자녀로 성북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소득계층 구분없음)
※ 아래 해당 증명서 제출미제출 시 접수불가)
- 접수방법 1. 방문접수(방문 전 전화요망)
-삼선동 : 삼선동 3가 56-1 삼선새마을금고(본점) 3층
-석관동 : 석관동 190-10
2. 메일접수(관련서류를 스캔하여 송부)
-삼선동(jbussi@hanmail.net)
-석관동(cddream@hanmail.net)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추첨(2012.8.30)
※ 결원발생 시 추가접수 : 2012.9.3(월)부터 선착순 모집
※ 기존 방과후 돌봄시설(온종일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미이용자 우선 선정 프로그램 이용료 : 월 5만원
※ 이용료 면제 대상 :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차상위, 조손, 다문화, 한부모가정의 아동, 장애 아동
- 이용프로그램(토요일포함 주 6일 운영)
○ 학습지도, 특기적성, 안전교육, 문화예술 체험활동 등
- 운영시간 : 평일(11:00~20:00), 방학 중(08:00~19:00)
토요일(10:00~15:00)
※ 평일은 식식 및 간식, 토요일은 점심을 제공하며 시설 사정상 운영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개관일 : 2012. 9.3(예정)

2) 강남구청 : 방과후학교 수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강남구는 ‘방과후학교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확대’를 민선5기 구청장 공약 및 구정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110개 학교(초등학교 30, 중학교 24, 고등학교 21, 특수학교 2, 유치원 33개)와 연계하여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 1위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며 공교육 1번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학부모, 학생 모두 만족하는 명품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3회 방과후학교 대상 지역 파트너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강남구는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1년까지 총 146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33개 사업, 11,000여개의 프로그램에 총 28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초등 방과후학교는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 가정 자녀를 위한 실질적인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돌봄의 사회적 분담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남구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우선 맞벌이 가정의

눈높이에 맞춰 보육과 교육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특별 서비스인 ‘온종일학교’와 ‘방학학교’를 꼽을 수 있다.

‘온종일학교’는 관내 14개 초등학교에서 저녁 9시까지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의 눈높이에 맞춰 보육과 교육을 한꺼번에 책임지는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돌봄은 물론 학교별로 특색 있는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하고 있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연간 3,360명이 10,920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주요 언론 및 뉴스에 집중적으로 소개된 온종일 학교는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초등 고품격 온종일학교]

- 기 간 : 2009년 5월 ~ 현재(3년차)
- 대 상 : 관내 14개 초등학교(개원, 개포, 구룡, 논현, 대모, 대진, 대현, 봉은, 삼성, 언주, 역삼, 일원, 포이, 학동)
- 내 용 : 저녁 9시까지 운영, 맞벌이가정의 교육과 보육 고민 모두 해결,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운영실적 : 연간 3,360명 참여, 10,920회 프로그램 운영
- 지원예산 : 26억 2천만원(3년간)
- 추진성과 : 학생 및 학부모 설문 조사결과 93.5% 만족, KBS 뉴스,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 집중 보도 및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대상



‘방학학교’는 방학이 되면 아이들 걱정과 마음 졸이던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심한 보살핌과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기 중에 부족했던 학과 공부뿐만 아니라,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예체능 프로그램, 야외 체험활동 등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점심도 제공하기 때문에 맞벌이가정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방학학교는 매년 여름, 겨울방학마다 10~12개 학교에서 학습, 문화, 운동, 다양한 현장 체험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2011년 겨울방학에는 12개 학교에서 운영되었다.

[초등 즐거운 방학학교]

- 기 간 : 2008년 겨울방학 ~ 현재(4년차)
- 대 상 : 총 64개교(방학당 10~14개교)
- 내 용 : 여름, 겨울방학 기간 중 학습 + 문화 + 운동 + 현장체험 + 점심제공
- 참여인원 : 총 6,000여명(6회)
- 지원예산 : 14억 4천만원(4년간)
- 추진성과 : 저소득 및 맞벌이가정 아동의 안전한 보육과 학기 중 어려운 현장체험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 실시로 사교육 경감, 공교육 만족도 향상



이 밖에도 강남구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큰 영어와 예체능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해 ‘영어체험센터’와 음악영재 양성 프로그램인 ‘해피뮤직 스쿨’ 등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구에서 지원하는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맞벌이가정의 부담을 해소하고 저렴한 수강료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으며, 저소득가정 자녀에게는 전액 무료로 하여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표 2-17〉 강남구청 운영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기간	대상	내용
음악영재 키우는 「해피 뮤직스쿨」	2009년 9월 ~ 현재(3년차)	관내 초, 중, 고 학생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강사진이 1:1 교육하는 음악 영재 양성 프로그램 총 256명 수료, 강사 9명 운영, 분기당 수강생 32명(현재 8기 운영 중) 수료생 다수 주요 콩쿠르 수상 및 예술중 입학 성과, 관·학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모범사례 제시, 지역 예능 영재 교육의 장 제공
초등 영어체험센터 설치	2006년 2월 ~ 현재 (6년차)	관내 12개 초등학교 (역삼, 대왕, 대곡, 청담, 학동, 포이, 개원, 도곡, 일원, 대현, 대도, 양전)	은행, 병원, 공항, 레스토랑 등 현지체험 존을 설치하고 원어민 강사와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현지 어학연수와 동일한 영어체험 기회 제공
노래와 춤으로 배우는 신나는 영어 - '어린이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2009. 12. 9, 2010. 12. 9	관내 20개 초등학교	연기, 노래, 춤이 어우러진 영어뮤지컬 교육 및 무대공연 발표회 실시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011년 3월 ~ 현재	관내 초, 중, 고 75개교	학생과학발명교실 운영 지원, 발명품 경진대회 및 수상작 전시회 개최
초·중등 명품 한자교육 활성화 지원	2008년 9월 ~ 현재 (4년차)	관내 54개 초, 중학교 (초 30, 중 24)	한자 교재 개발 보급 및 한자교육 심화반 운영 지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7단계의 온라인 한자인증사이트를 운영하여 203,284명 가입 활동(2010년 12월말 기준)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지원	2009년 3월 ~ 현재 (3년차)	관내 54개 초, 중학교 (초 30, 중 24)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사례 발표대회 개최 자기주도 실천능력 향상으로 사교육 경감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2007년 3월 ~ 현재 (5년차)	관내 초등학교 2개교 (대청, 수서)	맞벌이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 등의 안전 보호 및 학습 지원 맞벌이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격차 해소
〈초록세상 여름체험〉 「교과서 속 식물원과 그 린테라피」	2009. 7. 29 ~ 8. 12 (총 3회)	자녀[초등4~6학년]와 함께하는 45가족	이론수업, 수목원 관람, 관찰화 그리기, 원예치료 활동 등
박물관이 살아있다	2009. 7.21 ~ 8.23	초, 중학생 및 가족 40명	박물관을 통한 올바른 역사·문화교육
요리로 싹트는 가족사랑 쿠킹 클래스	2009. 7.23 ~ 8.20 (매주 목요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및 가족 40명	홈메이드 여름 간식 등 즐거운 여름방학 프로그램
파워국악	2009. 7.25 ~ 8.15 (매주 토요일)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 및 가족 40명	국립국악원, 국악방송과 연계한 실기 체험과 공연 관람 등
어린이 리더십 교육	2009.12. 30 ~ 2010.1.27(총 5회)	관내 초등학생 4학년~6학년 25명	어린이 리더십 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역량 강화
어린이 경제 뮤지컬 「재크의 요술지갑」	1회 -2010. 6.12 2회 -2010. 6.26	초등학교 1학년~4학년	뮤지컬을 통한 쉽고 재미있는 경제개념 학습
어린이 경제교실	2010. 7.31(토) ~ 2010. 8. 1(일)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 20명	여름방학 맞이 어린이 경제교실



어린이 영어뮤지컬 페스티벌



초등 영어체험센터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

〈표 계속〉 강남구청 운영 초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기간	대상	내용
명품 답사와 역사탐방	2010.1.12, 1.19, 1.21(총 3회)	강남구 초중학생 및 가족	공주 국립박물관, 무령왕릉 등 과학에 대한 흥미와 역사 체험 프로그램
항공우주 체험교실	2010.1.9, 1.16(총 2회)	강남구 초등학생 40명	항공우주박물관과 연계한 체험학습
어린이 과학소 「과학이랑 놀자! 사이언스 쇼!」	2010.11. 6(토) 14:00 ~ 16:00	초등학교 3학년~6학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쇼 형식의 과학학습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영자신문반	2011. 1.4 ~ 1.28 (총 12회)	초등학생 4~6학년 20명	학생 주도로 영자 신문 발행 및 영어자신감 향상
여름방학 학교 미술작품 전시회	2011. 8.22 ~ 8. 26	6개 초등학교 450명	여름방학 학교 참여 학생 공동 미술작품 전시

또한 강남구는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심화연수 과정 운영, 자기주도 학습지도 교사 양성과정 운영, 관·학 협약체결 등의 사업을 통해 방과후학교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심화연수 과정은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의 교과별 교수법에 대한 심화 연수 및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사용을 통한 학생 지도법 연수 과정으로 방과후학교 우수 강사를 발굴하고, 방과후학교의 콘텐츠 다양화에 일조하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지도 교사 양성 과정은 강남고용지원센터 및 서울교대와 연계한 교사 양성을 통해 여름방학학교에 학습지도교사를 투입하는 성과를 보였다. 관·학 협약은 2009년 개포초등학교와의 협력체결을 통해 평생 학습 진흥 협력, 음악교실 운영, 학교 평생교육 활용 모델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심화연수 과정 운영]

- 기 간 : 2009. 11. 9 ~ 12. 18
- 대 상 : 초, 중등 방과후학교 영어/수학 교과 강의 가능자
- 장 소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위탁교육(강남구 대치동 906-18 소재)
- 내 용 : 영어/수학 교과별 교수법에 대한 심화연수 및 LMS 사용법의 습득
- 참여인원 : 46명 수료
- 투입예산 : 19,365천원
- 추진성과 : 방과후학교 우수 강사 발굴 및 강사진 확충으로 콘텐츠 다양화

[자기주도 학습지도 교사 양성과정 운영]

- 기 간 : 2009. 3. 9 ~ 6. 30
- 대 상 : 강남 거주 교학력 미취업(중도퇴직) 여성
- 장 소 : 강남고용지원센터, 서울교대
- 내 용 : 자기주도학습 지도교사를 양성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 참여인원 : 15명
- 투입예산 : 3,500천원
- 추진성과 : 여름방학학교 자기주도 학습지도 교사를 양성해 방과후학교에 투입

[관·학협약체결(강남구-서울개포초등학교)]

- 일 시 : 2009. 6. 4
- 대 상 : 강남구 -서울개포초등학교
- 내 용 : 평생학습 진흥 협력, 음악교실 운영, 학교 평생교육 활용 모델 구축
- 추진사업 : 음악교실 운영, 학습동아리 사용 활용
- 의 의 : 관학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방과후학교 시스템 구축

2.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1)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개요⁴⁾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신력 있는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교대 및 사대의 예체능계열 졸업생이 참여하여 설립한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 및 사교육비 경감의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서울·부산·대구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인『(재)행복한학교』가 설립되어 방과후학교를 위탁 운영(초등 41개 학교, 7,700여명 수강)하고 있으나, 자생적으로 성장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은 ‘충남교육연구소(공주시, 2010년 5월 개소)’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표 2-18〉 (재)행복한학교 설립현황

지역별	서울	부산	대구
법인형태	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참여기관	-서울시 : 10억원 -SK : 20억원 -여성인력개발원	-부산시 : 5억원 -부산교육청 : 5억원 -SK : 13억원	-대구시 : 5억원 -대구교육청 : 5억원 -SK : 10억원
설립근거	서울시 조례	부산시 조례	대구시 조례
설립일자	2010. 3	2010. 6. 15	2010. 12. 21
참여학교 (학생)	초등 15개교(약 5,000명)	초등 20개교(약 2,100명)	초등 6개교(약 600명)

이에 따라 교과부는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지원 :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교대 및 사대의 예체능계 졸업생 등 우수 인력이 참여하여 설립된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기업의 프로그램 및 강사를 활용하여 방과후학교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지자체와 대학이 협력을 통해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기업(2012년, 20개 내외)을 공동 설립하고, EBS 개발 영어교재 및 콘텐츠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주 5일수업제, 창의적체험활동 등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4)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방안을 기본으로 사회적기업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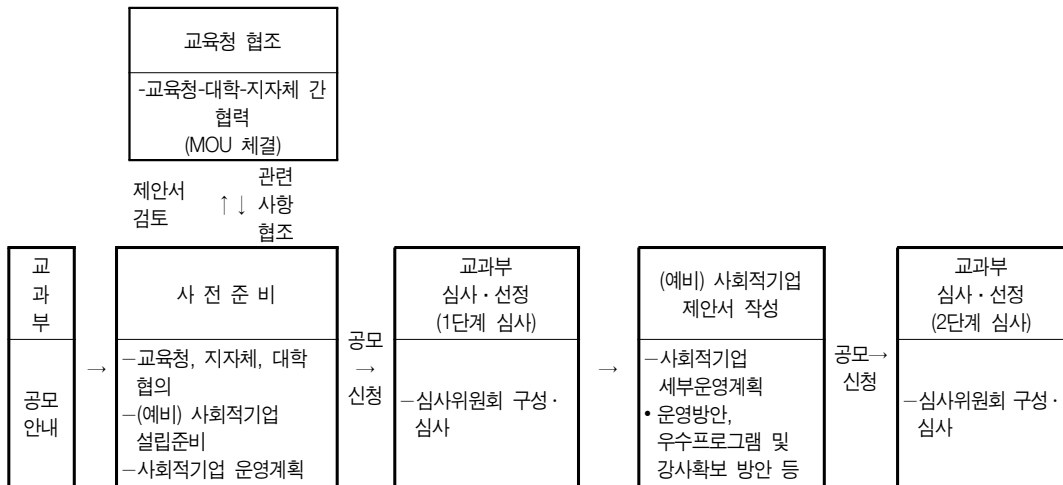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KEDI)는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설명회 개최, 예산지원, 우수모델 제공, 운영 매뉴얼 제공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은 대학·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 또는 MOU 체결, 학교·대학 간 협력지원, 1개 사회적기업당 10개 내외 시범운영 학교 선정,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도입 관련 행·재정 지원, 우수 사례 발굴·보급, 사회적기업 사후 관리 등을 지원하게 된다. 대학(교사대·예체능대학)은 졸업생 중심으로 강사 확보 및 연수, 프로그램 개발, 주식회사 또는 법인 설립 관련 출연,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기업 사무실을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기업 설립과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진흥원)는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 및 경영 컨설팅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시범 운영과정 성과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이 정규교과 과정과 연계 되거나 프로그램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며, 시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예비) 사회적기업 및 참여학교와 협의하여 방과후학교 위탁유형을 결정(전부위탁 또는 프로그램 위탁) 하게 된다.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추진내용]

- 대학-시도교육청-지자체 간 사업추진 협력 또는 MOU 체결
 - 대학은 참여교원을 중심으로 「(가칭) 방과후학교 지원단*」을 구성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지원
 - * 교과+특기적성+진로지도 등 전공 관련 교수로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강사연수, 경영자문 등 제공
 - * 프로그램은 정규수업과의 연계해 자기주도적 학습지도, 진로지도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 (예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설립
 - 대학-시도교육청-지자체 공동으로 구성한 「(가칭) 설립추진위원회」에서 대학 졸업생 중심으로 민법, 상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 등에 따른 법인 형태의* 조직을 갖춘 후**
 -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 시도교육청-대학-지자체-기업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으로 이사회 구성
 - ※ 이사회 구성 및 인원, 사무국 조직 등은 (가칭)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는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
 - ※ 인증절차 간소화, 인건비·경영컨설팅-경영자금 지원 등이 용이한 환경 조성을 통해 진입장벽 완화
 - (예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지자체, 고용노동부)
 - ※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업수행후 6개월 이후 가능, (예비) 사회적기업은 법인 설립후 지자체(광역)에 신청 가능
 - 사회적기업별 필요 강사(파트타임 포함) 선발(타교 졸업생 가능)
- 참여학교 선정
 - 지역 내 학교의 희망여부를 조사하고 학교의 지원의지, 민간위탁 비율, 학부모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선정
 - ※ 시도교육청은 참여학교에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방과후학교 운영비, 수강료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 가능

공모는 대학중심의 사회적기업 설립·운영의 전반적인 추진방향성 및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기 위해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는 교육청, 지자체, 기업 등의 연계 방안, 참여 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 의지, 사회적기업 운영계획 등을 심사한다. 2단계에는 1단계 심사 통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설립, 프로그램 우수성 및 지속 가능성 및 질 관리 방안, 우수 강사 확보 방안, 사회적기업 세부 운영계획 등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하게 된다.



〈그림 2-2〉 사회적기업 선정 절차

선발된 사회적기업은 해당 교육청을 통해 1개 사회적기업당 평균 5천만원~1억 5천만원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지원된 예산은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비, 강사연수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1개 사회적기업당 시범 운영학교를 10개 내외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2) 행복한학교재단⁵⁾

재단법인 행복한학교재단은 2010년 서울시교육청 허가로 설립되었다. 행복한학교재단은 2010년 상반기 12개 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14개 학교(잠실-삼전, 잠전, 동작-흑석, 을로, 마포-성산, 서교, 소의, 강북-미양, 광진-군자, 중구-동산(사립), 서대문-금화, 토요 방과후-송전, 미성, 중국)에 200여명의 강사를 파견하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5) 행복한학교재단 홈페이지(www.happy-school.org) 및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함.

행복한학교재단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해 공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적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지원해 방과후학교 별도 운영을 통한 정규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운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신규 콘텐츠 및 우수 강사 보급을 통해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또한 일반학원보다 저렴한 수강료를 받아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 우수한 방과후학교 콘텐츠 및 강사를 통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행복한학교재단의 사업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사업이다. 즉 공교육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기존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날개)부터, 신개념의 패키지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 등까지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는 학교특별활동 지원 사업이다. 즉 창의적 체험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소질개발 및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고, 학교개발활동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분야의 전문 강사를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특별활동(동아리) 강사로 파견하고 있다.

셋째는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이다. 즉 인력양성교육과정의 운영과 전문 강사 파견 및 위탁 운영사업을 시행 중이다.

행복한학교재단은 서울시와 여성인력개발기관, 그리고 SK와의 다자간 협력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 중 특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그림 2-3〉 행복한학교재단 운영모델

일단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을 시작하게 되면 행복한학교재단은 방과후 매니저를 파견하여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콘텐츠 관리는 강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위임하고 있다. 수

강학생의 비중을 보면 50~70% 정도가 맞벌이가정 아동으로, 맞벌이가정이 증가하는 사회구조에서 방과후학교의 역할은 보다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행복한학교재단의 교육프로그램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의 교과영역과 음악, 미술, 체육, 특기 등의 예체능 영역으로 주중 300~500개 과목, 주말 150여개 과목이 마련되어 있다. 학교는 다양한 과목개설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행복한학교재단은 이미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어 큰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예체능은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

2012년 현재 행복한학교재단은 200여명의 강사진을 보유하고, 14개 학교에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학습 콘텐츠를 강사가 직접 관리하며 재단 차원에서 강사관리나 교육 등을 책임지지 않으므로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은 강사는 탈락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자연적으로 강사의 수준관리는 된다고 할 수 있다.

〈표 2-19〉 행복한학교재단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교육프로그램

구분	운영과목
국어	교과국어, 창의력독서, 창의력 NIE, 발표와 글쓰기, 독서포트폴리오 등
영어	교과영어, Phonics, song & chant, speaking & listening, 영어뮤지컬, 영문법, 영어독해 등
수학	교과수학, 창의수학, 경시수학, 주산암산, 사고력수학 등
과학	교과과학, 생명과학, 실험과학, 로봇과학 등
사회	교과사회, 이야기세계사, 한국사 능력시험 대비반, 역사토론, 역사체험만들기, 지리체험만들기, 지도로 찾아 떠나는 세계여행 등
음악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기타, 단소, 리코더 등
미술	창의미술, 아동미술, 명화속 여행, 요리미술, 데생, 클레이아트, POP 등
체육	축구, 농구, 야구, 키 크는 성장체조, 배드민턴, 음악줄넘기, 태권도 등
특기	한자 급수반, 컴퓨터, 신기한 마술, 인성리더십, 학습코칭 등

주5일수업제를 맞아 행복한학교재단 역시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시장확대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정부가 강사비 보전 및 강사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배분하고 무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는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기관은 단일 강좌를 운영(컴퓨터, 원어민 등)하는 경우가 많으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전부를 위탁 운영하는 기관은 행복한학교재단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초기투자비용이 크고 사무국 운영 등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아직 수익구조가 안정화되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그림 2-4〉 행복한학교재단 홈페이지

3) 성균희망교실 Oh!늘⁶⁾

성균희망교실 Oh!늘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는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공모 사업을 통해 설립되었다. 교육의 문제가 학교가 아닌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성균희망교실 Oh!늘은 성균관대학교의 교수진과 성균관대학교 출신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전문가들의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와 교육복지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공익사단법인 체험학습 연구개발협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도 프로그램과 강사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검증된 프로그램과 강사를 확보하고 있다.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은 강사채용 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균희망교실 Oh!늘은 현재 사업초기 단계로 비임용 상태라 하더라도, 급여, 처우 등의 문제로 인해 사범대 출신 학생들의 지원자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강사 채용 시 강사연수계약서를 통해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고 강사로서의 마음가짐을 확인한 후, 봉사활동 참여를 필수적으로 유도하여 사회적기업의 모습을 갖추어, 개인을 성장시키는 회사로 운영하고자 한다. 하지만 사범대와 교대의 정서적 거리로 인해 초등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외의 요청이 없는 편이다.

6) 성균희망교실 Oh!늘 대표 및 담당자 인터뷰 자료와 내부 사업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표 2-20〉 강사의 범위 및 자격

강사의 범위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예체능 계열 졸업생 -성균관대학교 교직이수자 및 교육대학원 졸업생 -타 대학교 교대 및 사범대·예체능 계열 졸업생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전문 강사 -원어민 강사는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인 유학생 -멘토링 담당은 성균관대학교 사범대·예체능 계열 재학생 및 협력 동아리원
강사의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예체능 계열 전공자 -해당 부분 관련 자격 소지자 및 관련 대회 수상자 우대

현재 성균희망교실 Oh!들의 보유 강사풀은 74명으로 100% 성균관대학교 졸업생이고 사범대 43명(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예체능대 31명(미술, 체육, 연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의 실시로 강사의 자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사례] 성균희망교실 Oh!들

1. 추진목적

1) 비전

- 오늘이 행복한 내일의 창의인재 육성
 - 배움이 즐거운 창의인재 교육 : 교과 교육, 특기 적성, 교과 체험활동
 - 미래를 꿈꾸는 창의 진로 교육 : 자기이해 및 미래설계, Entrepreneurship 함양, 비즈니스 체험활동
- 희망찬 일자리 창출, 함께 가는 지역사회
 - 혁신적인 교육전문가 고용 및 양성 : 강사, 멘토, 강사관리
 - Win-Win하는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 기관연계 교육,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

2) 목표

- ① 학교 교육의 기능 보완(Slow Education)
 - 선행학습보다 제철학습 지향 -협력과 소통의 경험 제공 -배움의 즐거움 추구
- ② 다양한 창의인재 육성(Creative Education)
 - 자율성을 중시하는 학습을 통한 창의인재 양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 개발
 - 자아 정체감 확립 및 미래를 계획하는 진로 교육
- ③ 교육복지의 실현(Education Welfare)
 -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교육 지원 확대 -저렴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교육격차 해소
- ④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Sustainable Social Company)
 - 사범대 및 예체능계 졸업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강사의 능력이 최대화될 수 있는 안정적 복지환경 제공
- ⑤ 지역사회 활성화(Partnership with Localized Social Company)
 - 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실현 -지역 사회 인적 자원 활용 극대화

2. 추진방향

1) 교육내용 Oh!들은 무엇을?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창의체험·수기치인(修己治人)·멘토링·주말특화 프로그램 운영

2) 교육방법 Oh!들은 어떻게?

-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과 맞춤형 멘토링 시행
- 머리로만 이해하는 수업이 아닌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수업
- 교과의 경우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수준별 수업
-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다각적으로 구성

3) 교육장소 Oh!들은 어디서?

-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배움터로 활용

4) 교육도구 Oh!들은 무엇으로?

- 활동에 적합한 맞춤형 교재 자체 제작,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학습관리·강좌 맛보기 제공

5) 교육주체 **Oh!늘은 누가?**

- 성균관대 사범대 및 예체능 계열 우수 인재 채용, 타 대학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우수 인재 전문강사 채용
- 다양한 분야별 맞춤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강사의 전문성 신장
- 교육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상시 강사 평가 실시 및 결과 반영
- 수업으로 인한 강사의 고충을 관리함으로써, 문제상황을 해결하고 의욕을 고취
- 우수 강사에게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3.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계획

1) 프로그램 제공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청소년에게 학습과 고민 나눔에 대한 맞춤형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무료) 우선적으로 제공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위한 주말 /방학 /캠프 프로그램을 맞춤 제작 및 제공
- 여명학교와 연계해 탈북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2)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도를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
- 회사 내 자체 기준에 따른 취약계층 청소년의 수강비 차등 지원
- 유료 형태의 주말 /캠프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학생 3~5명당 1명의 취약계층 청소년 수강료 전액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생 중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표 2-21〉 강사 연수프로그램

기본교육	-안전 보건 생활지도 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요령 연수 -효과적인 학급 운영 방법 지도 -강사의 임무 및 마음가짐, 복무태도 교육 -학교장/교원/학생/학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관계 형성 방법 안내
전문교육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형 활동 교수법 지도 -체계적인 수업 설계 방법 지도 및 실습 -현장 경험이 많은 성균관대학교 동문의 강의 연수 -성균관대학교 수기치인리더십 과정을 통해 강사 리더십 함양 -성균관대학교 교육개발센터를 통한 교수학습법 강의 지원
워크숍	-팀빌딩(Team-building)에 근거한 세미나 개최 -레크레이션 활동 실시 -우수 강사 사례 발표 및 시상 -총회 실시 : 강사, 직원, 운영위원회, 이사회가 모두 참여

성균희망교실 Oh!늘의 프로그램은 시행시기에 따라 평일, 주말, 방학 프로그램으로, 유형에 따라 교과, 창의 체험활동, 수기치인,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프로그램들은 학교들의 기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수요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교과 프로그램은 입시와 연관되어 있어 수요가 높았고,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라 주말 특화형 프로그램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선적으로 3월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업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캠프 프로그램 운영, 주말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원, 영재교육원, 자체 교재 제작 및 판매 등을 통해 수익구조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방과후 학교 시장 라이프사이클 분석을 통해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이 도입기라고 판단해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의 미래를 밝게 진단하고 있다.

〈표 2-22〉 성균희망교실 Oh!늘 교육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소개
교과 프로그램	국어	꽃피는 논술반	읽기, 토론, 글쓰기 통합수업과 개별첨삭
		청춘에게 고함	담화 유형별 말하기 활동
		패러디가 떴다!	문학 작품 패러디 활동
	영어	Hello English 1(기초)	원어민 회화수업과 전화영어
		Hello English 2(심화)	원어민 회화수업과 전화영어
		새싹영어반(이해)	유용표현 학습과 듣기 수업
		열매영어반(심화)	원서 읽기, 토의, 글쓰기 통합수업과 개별첨삭
	수학	새싹수학반(이해)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수학적 지식 습득
		열매수학반(심화)	수리논술을 통해 수학적 · 논리적 사고함양, 개별첨삭
창의체험 활동 프로그램	문학	필(筆)가는 대로	체험과 결합된 시쓰기 활동
	탐구	CSI 과학수사대	사건 추리과정을 통해 과학적 지식과 사고력 함양
		Money 뭐니?	경제지식 학습 및 올바른 경제관념 세우기
		경제야 놀자	역사상의 주요 사건을 통해 경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기르기
	체육	축구반	축구를 통한 심신 단련 및 협동심 함양
		농구반	농구를 통한 심신 단련 협동심 함양
		골프반	골프강습을 통한 신체기능 강화
		Oh!늘과 함께 춤을	신나는 방송댄스를 통해 건강해지기
	음악	Shall We Dance?	다양한 무용 장르 익히기
		칸타빌레	보컬 트레이닝을 통한 음악 및 인성 교육
	미술	어쿠스틱 기타반	어쿠스틱 기타 연주 방법 습득
		피카소처럼 생각하기	오감을 활용한 미술활동을 통한 창의력과 심미감의 발달
	컴퓨터	전통문화예술 체험반	다양한 전통 문화예술(나전철기, 한지 등)을 배우기
		나도 파워블로거	블로그 제작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프로그램 활용법 습득
	캠프	농촌체험마을 캠프	농촌마을의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직접 농사일을 체험
		수상스포츠 캠프	수상스포츠 활동을 통해 심신 단련
		스키 · 보드 캠프	스키 · 보드 활동을 통해 심신 단련
수기치인 프로그램	캠프	진로적성캠프 :잡스(JOBS)를 찾아서	전문직업분야에 대한 진로탐색 직업교육 실시
		진로적성캠프 :나대(NADA)	진로체험활동을 통한 특기 · 적성 발견, 유형별 진로수업 실시
	자기 주도	스스로학습연구소	자기주도학습 전략의 체득을 통한 학습성취도 및 학습흥미도 향상
	인성	오늘이 행복한 프로젝트 여행	팀원들과 여행의 계획 · 준비 · 실행을 통한 협동심 함양
	리더십	자기리더십 프로그램 :I Can! U Can! We Can	개인적 · 사회적 리더십을 함양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조절하는 자기 관리능력 기르기
	진로	나의 꿈 나의 길 (부모님과 함께하는 진로특강)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명사를 초청하여 진로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주말 특화형 프로그램	음악	oh!늘 밴드반	악기 연주법 습득 및 밴드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배려심 기르기
	미술	애니타임(Ani-time)	캐릭터처와 애니메이션 활동을 통해 기초적인 드로잉 기술과 표현력 습득
	체험	박물관이 살아있다	매주 다양한 박물관 체험을 통해 지식 · 견문을 넓힘
		자연생태 탐사반	자연생태 체험을 통해 생태학적 지식습득 및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 함양
		나의 주말 농장	주말농장 경영을 통해 농업의 중요함과 수확 보람을 체험
	인성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교문화에 대해 배우고 조선시대 체험
	예절	전통예절과 놀이문화교실	전통예절을 익혀 올바른 인성 함양, 전통놀이를 통한 문화이해
멘토링 프로그램	학습	독(讀)하게 살자!	읽기 부진학생을 위한 읽기 능력 향상 수업
		씨앗영어반	영어단어 학습과 기초듣기, 기초문법과 단문독해 수업
		씨앗수학반	기초 개념을 마인드 맵으로 다지기
	고민나눔	색다른 고민 상담소	학생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멘토링

제4절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1. 방과후학교

서울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실제 운영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서울시의 동서남북 4개 권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크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강사(관리) 문제, 예산 문제 및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개설 강좌에 대한 선호도는 학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학교는 강좌를 개설하기 전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 강좌를 개설하고 있었다.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은 다시 수강신청을 거쳐 진행여부가 결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선호 수업과 외부학원 수강 간의 시간표 충돌 문제, 다른 과목과의 동일 시간대 개설 문제 등으로 인해 선호도가 있는 과목의 시간배정이 좋지 않을 경우 폐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목의 시간배분 문제에서 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구성을 종적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다. 공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교실을 방과후프로그램 공간으로 비워줄 경우 교사들이 일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규모가 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프로그램 개설 수에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일부지역의 경우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맛보기 강좌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한 학기에 그치는 강좌도 많다. 1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강좌의 경우 강사를 재임용하고는 있다.”

동북권 J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시간조정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동일강좌를 여러 클래스로 만들 경우 강사를 추가적으로 구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서북권 H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수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고학년의 경우 중고등학교 선행학습과 관련한 강좌들도 마련되어 있다. 선행학습강좌들이 인기가 있는 편이다. 일반 학원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다.”

서남권 M초등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외부위탁하는 학교도 있었다. 특히 원어민 강좌는 외부위탁운영을 통해 운영되는 학교도 있었으며, 일반 문예체 교육도 외부 문화예술관련 교육기관에 위탁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교사들은 강사검증 문제와 안전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민간이 시설을 구비하고 들어온 경우 100% 외부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능하다. 원어민도 시설만 학교에서 제공하고, 강사수준, 프로그램 수준까지 직접 외부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동북권 J초등학교

강좌 개설이 결정되면 강사를 선정하게 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의가 개설되면, 수강신청을 통해 수업이 시작된다. 강사가 신규채용일 경우 신원조회에서부터 면접까지의 추가 업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업무 담당을 위해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활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급여로 주어지는 예산이 부족해 일정 업무 외엔 부탁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결국 교사들이 처리할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굴, 유치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이었다.

“방과후 코디네이터의 경우 학교부장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업무로 대우가 조금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관리자의 입장에선 교내에서 교사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다. 결국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증가한다. 행정지원은 교사가 수업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남권 H초등학교

“행정지원사를 파견해준다 해도 저임금으로 일정부분을 교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어, 결국엔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별도의 관리부서가 있지 않는 한(방과후학교 전문관리인 등)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일을 벌이고 싶어하지 않아하는 경향이 있다.”

남동권 Y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은 온라인과 수기로 직접 적어 제출하는 오프라인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수강신청도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강신청을 통해 방과후학교 행정처리 업무가 경감했다는 학교도 있었으나, 온라인 수강신청 때문에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폭주해 도리어 업무가 증가했다는 학교도 있었다.

방과후학교의 문예체 관련 무료강좌에 대한 학교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일부 학교는 무료강좌로 개설된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학생 복지차원에서 접근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수강생을 학교 측에서 모집할 수도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

“우리는 전교생 227명의 작은 규모의 학교로, 유료강좌의 경우 수요가 낮고, 무료강좌의 경우 지원율이 높은 편이다. 수강생이 적은 강좌의 경우 보조금으로 프로그램을 보존하고 있다.”

서남권 H초등학교

“무료강좌가 많아지면,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아져야 하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수익자부담강좌의 무료지원이 보다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서남권 M초등학교

“교복투학교는 지원되는 각종예산이 많아서 무료강좌 비중이 꽤 높다. 경쟁을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무료강좌로 운영되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무료강좌의 경우 제한여건을 두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동북권 J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문제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선정문제에서 일선학교들은 강사인력풀 운영을 통해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의 과정만이라도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보였다. 짧게는 방과후학교 1기(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채용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몇몇 인기 있는 강좌만 1년 단위 재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기강좌의 경우 강좌수를 늘리려고 하면 강사수급이 쉽지가 않아 수요에 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예체능 강사들은 여러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일이 학교마다 같은 채용 과정을 거치게 되는 불편함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과과목보다 예체능 강사의 경우가 검증이 보다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예술강사 파견사업을 활용해 보려고 하였지만, 진도조정문제나 행정상 처리해야 할 문제 등이 보완되지 않는 한 현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정책이다.”

동북권 J초등학교

“강사문제 해결을 위해 방과후학교를 위탁 운영한다면 단점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반 외에 다른 반까지 관리하는 건 쉽지 않다.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동남권 Y초등학교

이런 연유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인력풀을 활용할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인력풀 자체가 가진 한계점 때문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전문기술을 가진 문예체 전문강사들은 이들만을 위한 인력풀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강사자질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이를 검증해내기는 쉽지가 않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인력풀을 활용할 경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강사를 실제 채용할 경우 원하는 강사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이미 활용되고 있는 강사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일선학교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동북권 J초등학교

또한 강사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으로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에서 학교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수업시 이용하는 학교 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 때문에 학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 중인 예술강사 파견사업은 좋은 정책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하지만 진도 조정 문제, 행정 처리 문제 등 수혜자인 학교입장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학교 관련 예산 문제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대해 교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예산의 주체가 달라 발생하는 행정 처리 문제에서 고충을 토로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교사들은 적극적

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처리 문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반응이었다.

“서울시 1,000~1,500만원가량의 방과후사업 지원예산은 소수강좌의 강의로 보전, 강사보존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교육청의 경우 자유수강권에 48만 원 정도 지원되며, 저소득층 아동 중 더 듣고 싶을 경우 지원을 하면 지급이 되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다.”

동북권 J초등학교

교사들은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자유수강권에 대해 학교 간 지역 간 형편을 고려하여 예산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원대상 학생이 없는 학교에서는 배분된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 참여율 및 자유수강권 비율을 확인하여 차등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실제 저소득층 비율이 낮은 학교들이 많이 있다.”

서남권 M초등학교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각종 교육관련 정책 등이 정책상의 회기만을 고려할 뿐 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었다. 정책의 목표가 보다 많은 수혜대상을 두고 있는 사업일수록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학교는 11월말에 1년의 교과과정 검토가 이루어지고, 겨울방학이면 모든 일정이 다 잡힌다. 2월에 공시되는 사업에 학교의 참여를 끌어내기는 어렵다. 때문에 정책개발 및 예산 배분 시 학교회기를 꼭 고려해야 한다. 구청예산의 경우 2월경 배분되고, 연간사업이라 학교에서 미리 예상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교육사업의 경우 초기년도, 2차년도 사업까지는 학교의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학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동남권 Y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상 어려움

실제로 방과후학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꼽는 문제의 핵심은 방과후학교로 인한 행정업무였다. 방과후학교 수강신청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강사채용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방과후학교 교실 임대로 인한 행정처리 공간 부족, 방과후 코디네이터 지원예산의 한계로 인한 제한적 업무 지원 등 수업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는 명제하에 교사들은 힘들어하고 있었다. 전문행정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외부에 모두 위탁하는 사례도 있긴 하나, 결국 책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지역자원의 활용방법에서 관리문제가 항상 대두된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또한 방과후학교가 사회적기업에 위탁된다면 결국 기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동북권 J초등학교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방과후학교의 질적인 부분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성고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문화예술 교육은 교사들의 관심 밖 영역이라 봐도 무리는 아니었다. 체육 교육은 기초체력 강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안전·관리문제가 항상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인 만큼 학교 밖을 벗어나는 문제에서 학부모와 선생님은 모두 학생의 신변 안전에 예민한 입장이었다. 또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과 기능에 한계가 생기게 된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만 하더라도 안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시연을 위해서는 학교 내로 끌어들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최근 구청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 인력이 한자교육과 동화구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청과 같이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외부 인력이나 지역자원과의 연계는 어렵다.”

동남권 Y초등학교

2. 돌봄교실

돌봄교실도 방과후학교의 실제 운영사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동서남북 4개 권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방과후학교와 마찬가지로 돌봄교실 역시 학교 입지 여건과 학교장의 역할에 따라 그 운영형

태가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내 모든 학교에는 돌봄교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최소 1학급에서 최대 3학급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교실 운영은 일부 수익자 부담도 있지만, 대부분 무료로 보육 및 교육을 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예산 지원 주체에 따라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교과부), 돌봄교실(교육청) 등으로 호칭을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돌봄교실에서는 방과후 숙제지도, 간식, 개별학습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몇몇 학교는 개별적으로 생활계획표를 세워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돌봄 전담 인력으로는 돌봄교실 전담교사(학교에서는 돌봄교실 전담강사라고 칭함)가 있으며, 기존의 돌봄교실 담당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초·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이 1년 단위로 계약하여 근무한다. 돌봄교실 교사의 강사 자격, 강사 채용 및 관리, 강사 구비 서류, 강사관리 등은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의 강사 관리 지침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교사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 필요 시간을 산출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채용되고 있다.

돌봄교실 교사는 초등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학교교사와 다른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처우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었다.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학교교사는 담당부장 형태로 행정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 실질적인 보육업무는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지원 및 보육업무 모두 보육교사가 담당하고 있어, 행정지원을 하는 학교교사나, 모든 업무를 맡는 보육교사나 현재 처우에 대해 무리하다는 입장이었다.

“보육교사 역시 하루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이나 보육이나의 경계에서 선생님이 소외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돌봄교실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북권 M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 주된 기능이 보육이기 때문에 학교는 안전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결국엔 학교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료 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때문에 보육강사의 급여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기는 하지만, 아이들 각각의 상황이 있어서 돌봄교실에서는 고유의 기능인 보육만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나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하더라도 방과후학교 등 오락가락하는 아이들이 많아 수업참여도가 높진 않습니다.”

서남권 K초등학교

서울문화재단의 창의예술교육 돌봄교실 지원사업은 일선 초등학교에 많이 알려져 절반가량의 학교에서 매주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미 수강 중인 학교는 유사 프로그램의 보급이 확대된다면 적극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돌봄교실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아이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수업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수업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방과후학교 수업에 지각할 정도로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되면 좋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도 만족합니다.”

동북권 K초등학교

동남권 Y초등학교는 OO구청의 온종일학교 예산과 교육청의 돌봄교실 지원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예산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운영상의 불편함이 있지만, 골고루 혜택을 분배하기 위해 운영의 묘를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통해 돌봄교실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예전에 대기명단이 길었으나 최근에는 대기인수가 많이 줄었다.

〈표 2-23〉 동남권 Y초등학교 돌봄교실 하루생활 계획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방과후~14:10		입실·알림장 확인 및 학급과제(1·2학년)				
14:10 ~14:40		즐거운 간식시간				
14:40 ~15:40		체육	음악	영어	미술	레크레이션수학
		요가와 스트레칭	수학	한자	퍼즐놀이	창의활동교실
15:40 ~15:50		교실이동 및 쉬는 시간				
15:50 ~16:50		요가와 스트레칭	수학	한자	퍼즐놀이	창의활동교실
		체육	음악	영어	미술	레크레이션수학
16:50 ~17:20		개별학습, 독서지도				
17:20 ~17:50		저녁식사				
17:50 ~21:00		DVD시청, 독서 개별하고지도	- 위 칸은 1학년, 아래 칸은 2학년 수업시간표 - 보육활동은 지도 내용과 영역별 프로그램에 의해 변동 - 영어교실은 격주로 선생님 한 분씩 수업			

제3장 서울시 문예체 교육 운영사례

제1절 서울시 문예체 교육 지원정책과 방과후 교육

제2절 방과후학교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 사례

제3장

서울시 문예체 교육 운영사례

제1절 서울시 문예체 교육 지원정책과 방과후 교육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문예체 관련 교육정책으로 역점과제인 문예체 교육의 활성화, 체육·수련교육 강화, 교육기부자 확대 및 활성화 지원 등이 있다. 그 중 문예체 교육 활성화의 세부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전문강사 지원, 1인 1악기 연주 실력 갖추기, 예감배달부(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운영, 또 하나의 학급 동아리 운영 등이 있다.

체육·수련교육 강화의 세부 사업으로는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초등학교 3학년 대상 기초수영교육 실시, 평생체육으로 연계되는 1인 1스포츠 활동 전개, 창의적 체험 중심의 수련교육 및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기반 마련 등이 있다.

교육기부자 확대 및 활성화 지원의 세부사업으로는 교육기부자 발굴·활용, 교육기부자 활용 방법의 다양화, 교육기부자 활동 지원, ‘어디나 학교, 누구나 선생님’ 운동 전개 등이 있다.

〈표 3-1〉 서울시교육청 문예체 관련 교육정책

역점과제	세부사업
문예체 교육의 활성화	문화·예술 전문강사 지원 1인 1악기 연주 실력 갖추기 예감배달부(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운영 또 하나의 학급 동아리 운영
체육·수련교육 강화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초등학교 3학년 대상 기초수영교육 실시 평생체육으로 연계되는 1인 1스포츠 활동 전개 창의적 체험 중심의 수련교육 및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기반 마련
교육기부자 확대 및 활성화 지원	교육기부자 발굴·활용 교육기부자 활용 방법의 다양화 교육기부자 활동 지원 ‘어디나 학교, 누구나 선생님’ 운동 전개

그 밖에 눈여겨 볼만한 문예체 교육정책으로는 6·3·3 징검다리 특별 프로그램, 5관·5실 활용 활성화,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다.

‘6·3·3 징검다리 특별 프로그램’은 전환기(초6·중3·고3 학년말) 교육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집중 편성하여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 영역으로는 자기주도적 지적 체험활동, 문화·예술·체육 체험활동, 자아존중감 리더십 함양, 직업·진로 체험활동 등이 있다.

5관·5실 활용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5관이란 박물관(미술관), 과학관(생태체험관), 공연관, 도서관, 체육·수련관을, 5실이란 작업실, 연습실, 실험실, 연구실, 상담실 등을 의미한다. 지역의 5관·5실 기관과의 연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각종 문예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총 5개의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crezone.sengo.kr>)를 통한 온라인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교수학습프로그램이 탑재·보급되고 있으며, 학교-교육기부자 간 온라인 매칭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다.

또한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문화예술지원센터가 학생동아리 상설 공연 공간 및 연습장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 예술가 공연 및 전시를 지원하고 있다.

〈표 3-2〉 서울교육종합지원센터 구성 및 프로그램

주 제	프로그램
혁신교육지원센터	교사의 협동 연구와 교육혁신 경험 공유 및 전파
학부모교육센터	학부모교육, 상담 및 연수
문화예술지원센터	학생동아리 상설 공연 공간 및 연습장 지역사회 예술가 공연 및 전시
진로·진학상담센터	‘진로·진학 원스톱 서비스’ 및 위기 상황 예방과 극복
교육정책 홍보센터	서울교육 정책 홍보 및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의 공간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운영 우수사례 - 서울개화초등학교 “즐거운 토요일 프로그램”

1. 추진 배경

- 토요 휴업일, 저소득층 맞벌이가정의 '나 홀로 학생들'이 각 가정에 방치되어 여가 선용이 어렵고 안전생활이 염려되는 실정
- 저소득층 '나홀로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지속적인 문화체험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주고자 교사와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즐거운 토요일' 프로그램을 계획 추진

2. 목적

- 토요 휴업일을 활용하여 집중지원대상자 및 맞벌이가정의 '나 홀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미활동과 문화예술 체험활동 기회를 줌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풍부한 감수성 및 바른 인성 함양

3. 추진 방법 및 내용

- 지도 대상자 선정은 집중지원대상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맞벌이가정의 자녀 중 희망자 신청 접수
- 단순한 흥미 위주의 활동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과학, 문화, 예술체험학습을 통해 창의력 및 사고력이 신장되도록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 학년별로 윤번제로 학생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서울시 동행프로젝트의 대학생 자원봉사자(4명)를 활용해 학생 안전을 지도함. 참가비 및 재료비는 전액 복지학교 예산으로 지원

4. 사업 실적 및 기대 효과

- 2010년 10월말 현재 총 10개 프로그램 운영
- 집중지원 대상학생 35명, 맞벌이가정 자녀 15명 참여, 10월말 현재 연인원 418명 참여
- 즐거운 토요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가정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참여 학생들의 95.2%가 만족

<프로그램 운영 현황>

날 짜	프로그램	활동 내용	활동 장소	비 고
3.26(토)	영화감상	'롤링 스타즈' 감상	공항 CGV	지하철 이용
4.9(토)	IT 체험	유비쿼터스 체험 및 '영화야 놀자!' 프로그램 참가	상암디지털파빌리온 한국영화박물관	무료체험과정 신청
4.23(토)	박물관 투어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 및 신문제작과정 학습	한국금융사박물관 신문박물관	무료체험과정 신청
5.14(토)	전통문화체험	찾아오는 떡 박물관 체험 (떡의 유래, 시절음식체험 보슬단자 만들기 체험)	학교	떡박물관에서 출장지도
5.28(토)	문화체험	대한민국대표 공연문화 난타 공연 관람	홍대 난타전용관	사랑티켓 지원 지하철 이용
6.11(토)	과학관 체험	과학탐구전시물 관람	인천학생과학관	무료체험 버스 임차
6.25(토)	박물관 노닐기	KB박물관노닐기사업 지원 종이 작품 관람 및 입체복 만들기 체험	종이나라 박물관	무료 체험 버스 임차
9.24(토)	뮤지컬 관람	가족 타악극 '모짜르트 원정대' 관람	목동방송회관 브로드홀	지하철 이용
10.08(토)	우주과학관 체험	항공 우주 관련 전시물 관람 및 비행 체험	항공대 우주항공 박물관	버스 이용
10.22(토)	우주박물관 체험	우주체험기구 이용 우주과학박물관 관람	옥토끼 우주센터	버스 임차
11.12(토)	꼬마 요리사	피자 만들기	학교 실과실	출장지도
11.26(토)	공예 체험	도자기 공예 체험	학교	출장지도
12.10(토)	영화감상	미정	공항 CGV	지하철 이용

5. 기대 효과

- 문화 소외계층인 집중지원 대상학생들과 맞벌이 가정 '나홀로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체험 교육활동을 통해 감수성 교육 및 바른 인성 함양
-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되며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 출처 : 서울시교육청, 2010,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운영 우수사례

제2절 방과후학교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 사례

방과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문예체 교육은 악기연주나 체육활동 등 특정 기술을 연마하는 프로그램 중심이다.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는 것은 문예체활동 등의 기본이 되기는 하지만, 현재 사교육 시장에서 진행되는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다. 그러나 공교육에서 문예체 분야는 전인적 인성 및 사회성과 협력 등 현대사회 유지에 필수적인 자질을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일반 교과과정보다는 방과후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전인적 예체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 절에서는 방과후 교육에서 전인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수한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발굴·제시하고자 한다.

1.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돌봄교실 지원 사업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돌봄교실 지원사업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선발하고 양성한 TA(Teaching Artist : 전문예술교육가)를 서울시 초등학교가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에 파견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초등돌봄교실 중 희망학급에 무용, 연극, 시각예술 등 3개 분야의 전문예술교육가를 파견하여 분야별 문화예술교육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연 30회 수업 지원(1개 학급당 1주 1회, 30주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으로 창의적 문화시민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를 꾀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어린이들에게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의 문화적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와 개발 지원 및 어린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TA를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이다. 셋째, 예술기량 교육을 위한 접근이 아닌 예술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과 심미적 감수성, 바른 인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수업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TA들은 수업 내용을 구성하며 각 분야(무용, 연극, 시각예술)의 전문성을 기초로 각 학교와 학생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미적체험교육의 이상적인 방법으로 통합예술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 교육사업 및 효율적

인 수업의 진행과 보완을 위해 전문평가단과 MTA(Master for Teaching Artist)를 중심으로 학교평가 및 강사, 수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2006년 처음 서울문화재단에서 방과후 교실(2008년 방과후 보육교실로 개정되었다가 2009년 이후 방과후 돌봄교실로 변경)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게 되면서 다양한 통합예술교육의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10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참여 어린이와 교사들의 호응에 힘입어 2010년엔 250개 학교로 운영학교의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2012년 현재 306개 학교가 이 사업을 운영 중이다. 2012년에는 400개교가 지원하였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 안배 및 지역배분 등을 통해 306개교가 선발되었다.

창의예술교육 돌봄교실 지원사업 연혁을 살펴보면 5년간 통합예술교육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통해 시스템을 발전시켜 온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에 방과후교실 지원사업이 시범운영될 때만 하더라도, 체계도 잡히지 않았을 뿐더러 통합 운영방식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의 아르떼(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강사포제)와 같은 운영체계 형식으로 모든 수업은 예술 강사 본인의 역량에 맡겼다. 2007년은 전문예술교육가들이 TA라는 명칭으로 처음 선발된 해로 무용과 연극분야 이외에 만화·애니메이션 분야가 도입되었다. 이때 통합예술교육이라는 큰 틀이 세워졌고 무용, 연극과 통합할 수 있는 분야로 만화·애니메이션 장르를 포함시켜, 3분야로 나누어 상반기 지도안이 작성되었다. 많은 TA의 의견 조율문제를 고려하여 3분야의 MTA라는 전문지도 교수진을 투입해 수업 지도안이 제작되었다. 팀티칭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각 분야의 TA들이 타 분야의 TA들과 3명씩 하나의 조를 이루어 팀을 구성하였다. 분야별 전공이 어우러지는 통합을 목표로 수업계획안을 개발하고, 팀원이 진행하고 있는 학교 중 하나를 대표 학교로 선정해 공개 통합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TA들이 팀티칭을 경험하게 되었다.

2008년에 서울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이 확장되면서 TA들의 인원수도 증가하였다. MTA들은 3분야의 통합예술교육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 ‘움직임’이라는 공통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으며, 움직임을 다룬 수업 지도안을 만들었다. 또한 MTA와 공개수업을 실행하게 될 TA가 협력하는 형식으로, 서로가 논의를 거친 끝에 홍보용 공개수업 통합예술교육의 지도안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 지도안은 기대보다는 높은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교과연계 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지원사업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지원학교와 TA들이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은 MTA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되고, 한 해 동안 통합예술교육에 관련한 많은 시도를 하게

된 시기이다. 만화·애니메이션분야가 시각예술분야로 확장되면서 다른 분야와 같은 독립 체계의 분야로 성장하였다. 무용과 시각예술 3팀, 연극과 시각예술 3팀으로 구성되어 팀티칭이 진행되었으며, 전체 TA들에게 하나의 주제가 주어지고 각 분야의 TA가 모여 팀을 이루는 통합 예술교육 지도안이 개발되었다.

2010년에는 250개교 250개 학급을 지원하고, TA들은 분야별로 무용 11명, 연극 10명, 시각 예술 7명으로 소폭으로 줄어들었다. 전문지도 교수체제는 대표 MTA가 아래로 CTA(Coach for TA)를 선정하고, 다시 CTA와 TA가 밀착하여 지도하는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에는 분야별 전문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며, 각 분야의 리더 TA들이 신규 TA들을 지도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또한 하반기에는 3분야가 같은 주제로 수업지도안을 제작하는 등 각 분야의 리더 TA들이 타 분야의 신규 TA들을 지도하는 체제로 바뀌면서 타 분야와의 소통과 특성을 통해 다양한 반응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2011년에는 300개교 300개 학급을 지원하고, TA들은 무용 11명, 연극 11명, 시각예술 8명 등 분야별 CTA가 1기 출신들로 구성되어 총 수는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분야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시작해 하반기에 통합예술교육을 목표로 하는 수업지도안을 제작하도록 흐름도 재정리되고, 링컨센터의 미적체험교육 방법론을 재단의 교육현장에 맞는 시스템으로 재구성 하려는 시도들도 보이고 있다⁷⁾.

〈표 3-3〉 어린이 창의예술교육 돌봄교실 지원 사업 개요

사업내용	서울시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방문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대상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어린이(1~3학년)		
사업연혁	년도	성과	특징
	2006년	94개교 109개 학급 대상 시범 운영	연극, 무용 분야
	2007년	100개교 100개 학급 지원 전문 튜터제 도입,	만화/애니분야 도입 무용+연극+애니 5팀 구성 팀티칭 시도
	2008년	163개교 212개 학급 지원 전문지도교수 MTA 연구 시스템 도입	홍보용 공개수업(분야별 대표TA 선정) MTA와 사전회의 후 팀티칭으로 시연
	2009년	176개교 239개 학급 지원 만화/애니분야를 시각예술분야로 확대지원	시각예술+무용(1기)3팀 시각예술+연극(1기)3팀 팀티칭 진행 무용+연극+시각 총 5팀 통합지도안 제작
	2010년	250개교 250개 학급 지원 전문지도교수 CTA(분야별 CTA-3명)제 운영	대표 MTA-1명/ / 리더 TA-3명 리더TA 타 분야 신규TA지도
	2011년	300개교 300개 학급 지원 CTA -1기 TA출신 구성	전체분야-모의수업을 통한 지도안 수정 (타 분야와 논의 지도안수정)
	2012년	306개교 지원	-

7) 서울문화재단, 2010, 「어린이 창의 Arts-TREE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연구」를 중심으로 재구성함.

이 사업은 돌봄교실 참여학생 중 방과후학교 참여 여건이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교재도 마련된 상태이다. CTA 3명은 핵심 6개교 주2회 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TA 7명이 연극, 시각, 무용 분야 등 3조로 나뉘어 각각의 교안을 만들고 있다. 또한 외부 위탁을 통해 수업의 효과성을 보기 위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다음은 용마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진행된 창의예술교육 수업시간의 사례이다.

용마초등학교 돌봄교실은 1~2학년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저소득층이 6명, 맞벌이가 11명, 한부모가정 6명이며, 방과후교실을 수강하는 학생은 13명이다. 4월 2주차 시작된 수업은 매주 70분씩 진행되고 있다. 다음은 돌봄교실을 참관한 내용이다.

아이들과의 눈 맞춤을 시작으로 지난 수업 시간의 이야기를 나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수만 가지의 꽃이름을 익힌 에콩이가 꽃들의 이야기를 듣고 손을 흔드는 순간 툭툭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중간중간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며, 상호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진다).’

‘에콩이가 빗방울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로 바뀌더니 모래알들이 쓸려내려가고, 무서워하는 모래알들을 위해 에콩이가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시냇물로 갔다가 강으로 갔다가, 또 폭포에서 투~옥 하고 떨어져서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어찌죠? 에콩이는 바다에 먹고 먹히는, 또 먹고 먹히는 생태계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겁이 나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이 에콩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강사는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4차 소비자 각각의 이론을, 준비해 온 패널을 통해 설명한다. 각각의 설명과 그림 자료에 아이들의 질문이 쏟아진다. ‘선생님 저건 우산 모양이에요’, ‘이건 식물성 플랑크톤이야, 동물성 플랑크톤에 잡아먹히지. 하지만 4차 소비자의 몸을 통해 다시 태어난단다.’

패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끝나자 준비해온 영상자료의 상영이 시작된다. 오션스라는 바다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의 편집 영상. 패널에서 보았던 바다 속 생태계 먹이사슬 각각에 대한 실제 영상이 보인다. 아이들의 호기심은 배가된다. 흥분으로 가득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영상을 함께 즐긴다.

상영이 끝난 후 ‘자! 이제 우리 용마초등학교의 상상의 바다 속을 만들어 볼 거예요 다들 준비됐죠?’, ‘네~ 선생님. 저는 4차 소비자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생태계의 소비자

를 그럴 건지 머릿속으로 상상한 후에 선생님이 나누어 준 종이에 그려보세요. 단 법칙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의 신체 일부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야 해요. 신체의 일부를 기본으로 찍거나 모양을 따라서 그린 다음에 생태계의 어느 부분의 물고기인지, 그리고 이름은 무엇인지, 이 세상에는 절~대로 없는 물고기를 그려주세요.’

아이들은 열심히 그림을 그리느라 정신이 없고 그 사이 강사는 큰 전지를 이어 해초와 조개 등을 오려붙이며 밑바탕이 될 바다속을 꾸민다. 30여분의 시간이 지난 후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모두 모아 바다 속에 붙인 다음 칠판에 게시한다. 각각의 그림에 대해 그린 친구들이 설명을 하고, 선생님과 각종 대화를 나눈다. 강사의 감탄과 격려가 쏟아진다.

이제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

‘여러분! 여러분이 꾸민 용마초 바다 속을 보고 에콩이는 더 이상 바다 속이 무섭지가 않네요. 다음 시간에는 에콩이가 풀 숲에 가서 숨바꼭질을 할 거라는데요. 숲속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을지 기대되나요?’

‘여러분의 상상력은 어른들도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소중한 것이지요. 여러분의 상상력 덕분에 에콩이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구호를 외친다) ‘(선생님) 연극’, ‘(아이들) 용마’, ‘(다함께) 사랑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70여분의 시간은 알차게 꾸며졌다. 몇몇 아이들은 방과후교실 수업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끝까지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보육교사는 수업 중간마다 TA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보조교사 역시 아이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서울문화재단의 수업에 참여한 돌봄교실 보육강사의 이야기이다.

“무엇을 가르쳐주려고 하면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자신만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친구들의 다양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수업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던 우리반 OO는 뛰어나게 잘하지는 못해도 다양한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술, 연극, 놀이요소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술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놀면서 미술적인 표현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어 효과적이었습니다.”

“모든 활동에 호기심도 없고 협동심도 보이지 않았던 학생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협동심

이 없으면 활동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협동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가 연극시간에 재미있게 수업을 함으로써 다양한 사고로 발표력도 늘어나고 흥미를 갖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수업의 효과로는 소극적이었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며, ADHD, 반항아 등을 계도하는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교실 교사들도 예술과 돌봄의 만남이 어색하다 생각했으나, 숙제지도, 색종이 놀이 등에 한계를 느끼던 차라 새로운 교육방식에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돌봄교실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교사연수 프로그램은 돌봄교실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직접 돌봄교사가 체험해보는 형식의 연수로 아이들이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아이들이 왜 변화하는지 느낄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공감하게 되고, 일선 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 호기심 예술학교

호기심 예술학교는 공연 형태의 다양한 놀이 형식을 통한 연계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의 발현을 유도하는 집중 통합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이며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따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공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미적체험교육을 경험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항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수업 이외에 미적체험의 극대화 및 TA의 역량강화를 위해 집중 체험교육프로그램인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상상여행>이 기획되었다.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는 교육대상 어린이의 창의성 및 감성 개발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진행된 새로운 학교문화예술교육 집중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 MTA와 TA에 의해 공동으로 연구·개발되었다. 또한 전문성과 예술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예술가(무대미술, 의상, 조명, 영상, 음향, 분장) 등이 함께 작업에 참여하였다. 상상공간 안에서는 학습, 체험, 공연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이 제공된다.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의 특징은 놀이와 공연형식을 연계한 집중 통합에
술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극, 무용, 시각예술분야 TA가 10~25명 이상 인원과 함께 공연을
진행하면서 팀티칭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점이다.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는 2007년 서울시 효제초등학교에서의 시범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이 공연은 2006년 링컨센터에서 시행된 LCI 워크숍⁸⁾ 수료자였던 연극분야 전공자의 기획과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연극분야의 마임공연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
고, 시각예술분야에서는 종이접기, 플라스틱 제품을 활용한 재활용 공예, 점토공예 등 두 분야
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2008년에도 이 공연은 효제초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되었고, 시범 공연에 비해 공연형식이 구
체화 된 특징을 보이고, 무대를 제작하여 공간이 분배되어 어린이들의 집중을 유도하였다. 참
여자인 어린이들은 공연 관객이나 가벼운 체험 정도의 참여보다 적극적으로 미션을 수행하고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공연의 주체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부터 TA들이 호기심 사업을 진행하
면서 직접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2009년에 기획되었던 호기심 예술학교 프로그램은 신종플루로 인해 무산된 대신 그 기간에
LCI 워크숍처럼 예술 공연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위한 성인대상 공연연계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2009년에 무산되었던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프로젝트는 ‘즐거운 생활’ 2학년 교과에 수
록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수정보완하여 2010년에 다시 공연되었다. 이 체험공연은 효제초등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산창작센터
제1연습실에서 진행되었고, 참여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관람이 허용되었다.
연극의 이야기 구조 안에서 전문가들이 연기를 하고, 무용분야의 공연을 관람하여 움직임
유도하는 역할로 진행되었다. 시각예술분야에서는 아이들이 퍼즐조각들을 활용해 새로운 이미
지를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매체로서 애니메이션이 활용되었다. 학교
에서 어린이들이 교과로 접했던 내용을 활용하여 교육으로 구성하였고, 이후 관련 예술교육
활동지를 제작·배포하였다.

2011년 창의성 신장 효과로 화제가 됐던 <예술로 돌봄> 프로그램은 서울문화재단 TA들이
국립극단과 함께 직접 개발한 초등 저학년용 여름 특별 프로그램으로, 교과 내용을 교실이 아
닌 극장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어린이들의 집중력과 상상력을 단시간에 이끌어 내는 특징
으로 더 각광받게 되었다.

8) 링컨센터예술교육원(LCI : Lincoln Center Institute)에서 37년간 InEW(International Educator Workshop) 운영을
통해 검증된 교육 방법론으로 “상상력교육을 위한 개발능력 방법론”에 입각한 교육자 대상 창의성 전문교육

2012년 프로그램인『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달과 그림자2』는 초등 2학년 교과 <슬기로운 생활>('낮과 밤이 달라요, 그림자와 친구해요' 단원)과 3학년 교과 <과학>('빛과 그림자' 단원)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다양한 문화'라는 요소를 첨가해 재구성했다.

어린이들을 밤의 세계로 초대한 그림자 광대는 온몸으로 다양한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그림자의 원리를 알려주고, 하루 일과를 연극으로 표현해 낮과 밤, 빛과 어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어린이들은 대형 스크린과 흰 천을 활용한 짧은 연극을 보고, 동요(달, 달, 무슨 달, 쟁반 같이 둥근 달)를 부르며 무대 위에서 직접 그림자 만들기를 놀이로 체험한다.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에게 "빛과 그림자의 원리"라는 과학은 어느 순간 '공부'가 아니라 '놀이'가 된다. 그간 어린이들이 교과 단원을 통해 낮과 밤이 왜 생기는지, 해와 달은 왜 바뀌는지, 그림자의 길이가 하루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글로 배웠다면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달과 그림자 2』 참여 어린이들은 그림자 광대들과 친구가 되어 낮에서 밤으로 변하는 시간의 흐름을 관찰하며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과정, 그림자를 만들고 직접 그림자가 되어보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관람하는 공연이 아닌 체험하는 공연이라는 점이다. 어린이들이 직접 무대 위를 누비고, 스스로 표현을 통해 만들어가는 특별한 경험 속에서 짧은 시간에 상상력이 확장되고, 자신감과 행복감이 고조될 수 있다. 2011년 교과 연계 예술체험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그림자야, 나 혼자야 아니어서 너무 좋아. 혼자면 무섭거든. 그때 나랑 같이 있어줘." 등의 많은 그림일기와 편지들을 후기로 보내왔으며 홍일초등학교 전담강사는 "달과 그림자 공연 후 아이들이 빛과 그림자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림자놀이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많이 즐거워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이런 공연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12년 달과 그림자 공연은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70분의 세계여행'이라는 테마 아래 전개되며 그림자 광대와 함께 여러 나라의 달을 바라보고, 여러 민족의 달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달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상상력, 그 안에 담긴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서울문화재단은 궁극적으로 예술적 소통 방식을 빌어 교과의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새로운 예술적 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꾸준히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표 3-4〉 호기심 예술학교 개요

사업내용	교과 및 공연과 연계한 어린이 대상 집중 통합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대상	초등 1~2학년 어린이, 여름방학 중 운영
사업연혁	2007년 : 2개교 〈마법예술학교〉 운영 2008년 : 5개교 〈토우마을 상상여행〉 운영) 2010년 : 교과 연계 및 교육적 요소 강화로 〈상상 점수함 속 상상 여행〉 운영 2011년 :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달과 그림자 1〉 운영 2012년 :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달과 그림자 2〉 운영

2012년 호기심 예술학교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월 13일(금)부터 20일(금)까지(주말제외) 6일간 12차례 공연은 서울문화재단 <예술로 돌봄> 지원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7월 23일(월)부터 8월 3일(금)까지(주말제외) 10일간 20차례 공연은 서울 문화 바우처사업과 연계해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 어린이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달과 그림자 2』는 주중에는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를 초청하여 진행하며, 7월 21일(토), 7월 28일(토), 8월 4일(토) 6차례 공연(1일 2회)은 개별 참가자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개별참가자는 공연이 예정된 해당주의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e-sac.or.kr)에서 선착순(회당 30명)으로 신청받는다.

보다 발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교 교사 및 아동교육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관석을 별도로 마련하며 교과학습과 연계한 공연형식의 통합예술교육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인 현상이나 문제에 많이 좌우되어 실행 사례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하는 통합예술교육의 미적체험교육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도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미적체험교육의 지원 사업으로서 좋은 평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TA들의 팀티칭과 분야를 체험해보는 의미가 커짐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3. 다문화제고 교육연극⁹⁾

교육연극(Theatre in Education)이란 교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극의 상상적인 힘과 테크닉을 이용하는 연극형태로, 세계대전 이후 사회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유용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찾으려는 연극의 노력과 교육으로서 사회를 탐구하는 변화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사회와 연극

9) 구로문화재단, 2011, 다문화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연극 T.I.E. 사달수드.

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과정에서 교육연극은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교육연극 극단의 단원들은 배우와 교사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배우와 교사의 자질, 기술과 목표 등이 결합된 것이다. 예술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교육의 효과야말로 교육연극 작업의 무한한 잠재력이라 할 수 있다.

구로문화재단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연극교육프로그램으로 2011년 교육연극을 도입하였다. 교육연극은 다른 연극, 특히 어린이 연극과 구별되며, 독립적인 연극상연의 형태를 띠지 않는다. 토픽의 상황과 문제거리들을 직접 경험하고 그 문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인 교육연극은 계획된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과정을 중심으로 연극적 사건을 통해 자극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교육연극은 예비 교사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법을 익히고, 교사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자료 조사 및 수집이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시연회를 통해 피드백을 받아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강이 이루어진다. 즉 리서치 및 자료조사과정을 기본으로 소재로 선택된 걸리버 여행기 책 속에서 방점을 찾아낸다. 그다음으로 인물을 구축하게 된다. 역할배정을 통해 연극의 주인공이 될 인물을 설정하고, 각각의 캐릭터 움직임에 대한 연구 및 시연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장면 연습을 통해 ‘약속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거 먹어봐’ 등 아이들에게 보다 전달력 있는 대사를 위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시연을 통한 피드백 과정을 통해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된다.

2011년 신구로초등학교, 구로초등학교, 성동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초·중·고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연극 공연이 이루어졌다. 신구로초등학교는 전교생 800여 명 중 10%인 80여명이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중국에서 온 아이들이 많은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해서 중국에 머물다 입국한 아이들로 알려져 있다. 구로초등학교는 학교장과 운영위원장의 관심을 통해 교육연극공연이 가능했다.

‘사진기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성동구외국인센터에서 개최된 사달수드 T.I.E.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해지기 위한 단계로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별명을 짓고 소개하면 서로의 별명을 불러주며 수업이 시작된다. 두 번째, 서로의 언어로 인사하기. 베트남, 중국 등에서 온 친구들이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나누며 눈빛을 교환하고 웃음을 나눈다. 세 번째, 어둠속에서 상상무도회가 시작된다. 교실에 불을 끄고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한다. 서로 부딪히며, 안고

몸을 느낀다. 서로에 대한 경계를 낮춘 아이들을 보다 친하게 하기 위해, 편을 나누어 몸으로 단어를 표현하는 퀴즈게임이 시작된다. 자유자재로 몸을 구사하는 아이들을 보며 교실에 웃음이 가득 찬다. 몸 풀기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내 몸 알기에 들어간다. 짝을 지어 한 친구가 원하는 모습으로 전지 위에 눕거나 앉거나 하면, 다른 친구는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그려준다. 그리고 벽에 게시하고, 친구들 모두 다른 친구의 몸에 제목을 지어준다. 각각의 제목을 붙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나와 네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친구들의 다양한 신체 표현방식에 대해 서로 감탄하며, 즐거움을 나눈다. 하나가 된 아이들이 이젠 상상할 시간이다. 여행을 떠나요란 주제하에 주어진 사진을 보고 상상하기 시간이 펼쳐진다. 바닷가 사진을 든 친구의 수영하는 상상, 이와 더불어 수영하는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기, 산이 있는 풍경을 든 친구의 등산하는 상상과 그 모습, 다양한 소재의 사진과 아이들의 상상 나누기가 시작된다. 더불어 여행을 떠난 사진 속을 상상하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주어진다. 그림을 그린 후 게시하고 친구들에게 설명해준다. 교사는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홍분의 도가니가 된 교실에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문화교육이 시작된다.

엄마나라의 음악듣기 시간. 몽골음악을 들으며 몸으로 표현하기, 러시아 음악을 듣고 춤추기, 인도음악을 들으며 요가하기 등 다양한 나라의 음악을 들으며 몸으로 표현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오늘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걸리버 이야기 읽기. 선생님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다. 아이들과 강사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책을 읽어준 후 걸리버 이야기의 스토리 각색이 시작된다. 이를 기반으로 연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리버 이야기! 대인국 마을에서 소인국로 떨어진 걸리버, 걸리버를 불편해하는 소인국 사람들, 걸리버를 괴롭히는 소인국 사람들이 걸리버와 친해지기까지 하나의 연극이 완성된다. 연극 중간마다 강사는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 개입하며, 역할 하나하나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각자의 생각을 말할 기회를 주며 이야기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위의 연극놀이를 하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점에 대해 한 아이는 말했다.

‘아 큰 괴물이다 하며 친구들과 놀았던 것이 재미있었어요 걸리버 이야기 속에서 작은 사람들이 놀렸을 때 슬펐어요 제가 학교 친구는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제 꿈은 비행기 조종사예요 사람들 누구나 다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고 싶어요’

또 다른 아이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연극놀이 재미있었어요 센터에 오는 것이 제일 좋아요 학교 친구들은 저랑 같이 놀아주지 않고 따로 혼자 놀아서 센터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아요 제일 어려운 과목은 수학이에요 구구단이 너무 어려워요’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며, 연극교육을 통한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인식 개선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으로 2011년 실행되었으나 2012년에는 사업실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다문화 연극교육뿐만 아니라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연극교육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공연장의 입장에서는 학교와의 매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도 있으나 학교입장에서는 회당 50만원 수준의 예산 마련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일선 학교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토요일 연극놀이프로그램이 있다.

다음은 신구로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공연의 내용이다.

‘지구 외에 다른 별로 가보게 된다면 어떨까에 대한 상상을 통한 연극이 구현된다. 모든 아이가 연극의 공연자가 되고 각자 가보고 싶은 별나라를 선택하게 된다. 각각의 별나라로 배정된 아이들과 연극 활동이 시작된다. 특히 사달수드별을 선택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연극이 진행된다.....사달수드별에 입국하기 위한 선언식이 펼쳐진다. 아이들이 줄지어 선언하듯 입국절차를 수행한다. 오른손을 들고 사달수드별의 규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따라 외친다. 사달수드별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는 ‘야~호’를 외치면 안 된다. 그리고 높임말과 낮춤말을 쓰는 방식 또한 지구와는 정반대이다. 또한 원하는 직업이 아닌 정해진 직업으로 살아야 하는 별이다. 모두 규칙을 상기하며,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이 적힌 명찰을 각각 목에 건다. 원하지 않은 직업을 목에 건 아이들의 표정이 어리둥절하다. 이렇게 직업이 미리 정해지니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 연극은 계속 진행된다. (소은) 내 인생을, 사달수드별에서 한 번에 바꿔 버리는 거야.’ 직업명찰에 웅성이던 아이들은 다시 집중하여 관람을 시작한다. 돈이 중심이고 일이 중심인 세상이다. 이주한 지구인은 소외되어 일만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사달수드별 뉴스 이 별의 방식을 모두 익히기는 너무 어렵다. 여기 사람들 마음을 알기 너무 어렵다는 내용의 뉴스이다. 시청자 법정. 아이들의 각자의 입장에 서서 설명한다. 곧 이주민을 위한 법이 필요함을 도출해 낸다. 이주민 소은에게 던지는 아이들의 질문 ‘힘드는데 왜 지구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나요?’ , 소은은 답한다 ‘사달수드에서 부딪히는 건 내 방식, 지구별 방식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구별에 대한 방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떠나지 않고 있다. 지구별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조금 더 도와주면 좋겠다. 지구별 사람이 지쳤다.’ 소은의 인터뷰로 연극은 끝을 향해 달린다. 둥글게 둘러앉아 이주민인 소은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후속활동이 상징적으로 이어진다. ‘지구별 주민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법을 써줘도 좋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제안을 하셔도 됩니다.’ 강사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소은을 도울 방법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며 소은에게 편지를 쓰는 아이들, 좋은 제안을 하는 아이들 등 진지한 시간이 흐른다. 각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함께 그 생각을 나누는 시간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참여한 아이들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밝혔다.

‘소은과 신베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신베는 한국말을 잘 해야 하고, 소은은 신베말을 잘 들어줘야 해요.’

‘사달수드법에 너무 속박되어 있어 소은이 불쌍했어요. 안타까웠어요.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면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웠어요.’

‘소은이가 힘들어할 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하다 말해주고 싶어요. 저도 외국인 친구들을 은연중에 무시했었는데 반성도 되면서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외국인들의 생활방식이 우리랑 다르니까요, 이 공연을 보면서 외국인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어요.’

교육연극 수업을 진행한 선생님은 공연 후 아이들과 배우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통해 높은 학습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극교육이 실제로 진행된 성동구외국인센터 센터장은 생활에서 겪은 문제점들이 대리적으로 해결되고,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감동적인 프로그램으로 나와 네가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해 낼 수 있는 매우 효과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업에 참여한 외국인 아이들이 매우 밝아지고, 사회 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아트밸리 다문화 제고 교육연극

서울시 남부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구로, 금천, 영등포구 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총 692명이고, 그 중 절반에 가까운 44.4%, 307명이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다. 구로구(구청장 이성)은 이런 지역적 특성에 맞춘 교육연극을 13일부터 14일까지 신구로 초등학교 다목적실에서 진행한다.

미래 주역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이 교육연극은 구로문화재단과 극단 마실이 공동 제작했다. 이 연극 제목은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연극 사달수드'다. 교육연극이란 1960년대 영국에서 출발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연극의 한 장르로 일반 연극과 달리 관객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주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함께 인식해 토론하는 참여공연 방식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교육 형태로 알려져 있다.



공연은 관객 모두 2009년 미래한국의 대학생이 되어 사달수드 여행에 동참해 다른 별에서의 다양한 문화 차이와 철학의 다름을 체험한 후 사달수드 여행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주인공 소은이의 사연을 집중 조명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공연 관람 후 관객은 '어떻게 하면 소은이가 인생의 단 한 번의 기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연극 스토리는 베트남 몽골 태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다문화가정 자녀와 한국가정 아이들과 연극놀이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다문화지원센터, 교사 등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 인사들과의 인터뷰와 조사를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 공연은 2011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2011년 10월 10일자

4. 방과후학교 오케스트라 사업

현재 우리나라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으로 가장 많이 보급된 것이 오케스트라 사업이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템아(El Sistema)를 모델로 한 것으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다문화가정 어린이 오케스트라 등이 대표적이다.

엘 시스템아는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이다. 수도 카라

가스의 빈민가 차고에서 빈민층 청소년 11명의 단원으로 시작한 엘 시스템아는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세계적인 음악가를 배출하는 등 현재 사회 개혁 프로그램의 대명사가 됐다.

엘 시스템아는 ‘시스템’이라는 뜻의 스페인어이지만 ‘베네수엘라의 빈민층 아이들을 위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뜻하는 고유명사로 통한다. 엘 시스템아의 정식 명칭은 ‘베네수엘라 국립 청년 및 유소년 오케스트라 시스템 육성재단(FESNOJIV : Fundacion del Estado para el Sistema Nacional de las Orquestas Juveniles e Infantiles de Venezuela)’이다.

1975년 경제학자이자 아마추어 음악가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José Antonio Abreu) 박사가 설립한 엘 시스템아는 35년이 지난 2010년 현재 190여 개 센터, 26만여 명이 가입된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빈민가 아동이라면 누구든지 악기를 무료로 배울 수 있으며, 수년간 방과후 4시간의 음악교육을 매일 받게 된다.

오케스트라의 취지에 공감한 베네수엘라 정부와 세계 각국의 음악인, 민간 기업의 후원으로 엘 시스템아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 시스템으로 정착하였다.

엘 시스템아는 종전의 음악교육과 달리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 즉 마약과 폭력, 포르노, 총기 사고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베네수엘라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제시하고, 협동·이해·질서·소속감·책임감 등의 가치를 심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엘 시스템아가 배출한 세계적인 음악가로는 LA 필하모닉 상임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Gustavo Adolfo Dudamel Ramirez)과 베를린 필하모닉 최연소 더블베이스 연주자 에딕슨 루이즈(Edicson Ruiz) 등이 있다. 엘 시스템아의 수많은 오케스트라 중 명문으로 꼽히는 시몬 볼리바르 유스 오케스트라(Simon Bolivar Youth Orchestra), 카라카스 유스 오케스트라(Caracas Youth Orchestra) 등은 해외공연까지 다니는 프로페셔널 오케스트라이다.

베네수엘라의 이 실험적인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엄청난 반응과 효과를 불러오자 지금은 베네수엘라를 넘어 남미 전역은 물론 세계 각국의 사회 개혁 프로그램으로 확산되었다. ‘기적의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엘 시스템아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2004년 다큐멘터리 영화 <연주하고 싸워라 Tocar y Luchar>, 2008년 <엘 시스템아 El Sistema> 등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서울시의 저소득층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는 엘 시스템아를 벤치마킹한 무상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현재 도봉구와 구로구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12년 종로·용산·노원·금천구를 포함해 6개 자치구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강사진과 함께 악기, 악보 등 강의에 필요한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외지역 어린이들의 감수성을 개발하고 삶의 긍정적 변화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자치구 거주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매년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의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는 6학년까지 3년간 이어지는 장기 프로그램이며 매주 2회는 반별수업으로, 1회는 통합교육으로 진행된다. 전액 무료교육으로 교육기간 동안 악기도 무료로 제공되며 연 1회 통합캠프가 이뤄진다. 매년 1차례 이상의 정기연주회와 지역사회 봉사 연주회 기회도 주어진다. 연주할 악기 종류는 선발 후 배정된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의 신입단원 선발 대상은 도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80% 미만 가구의 자녀로 해당 자치구에 거주해야 하며,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우가정 자녀는 우대된다.



출처 : www.yongsan.go.kr

〈그림 3-1〉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용산 입학식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역시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를 모델로 한 문화교육 사업으로, 서울지역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¹⁰⁾ 창단은 전남과 제주, 대전 드림오케스트라에 이어 네 번째이다.

최초로 창단된 전남 드림오케스트라는 2010년 10월 목포, 신안 지역 아동 35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현재 110명의 아이들이 폐교인 옥남초등학교에서 악기를 배우고 있다. 일주일에 두

10)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dreamorchestra/>

번, 저녁 3시간의 연습에 평균 출석률 95% 이상일 만큼 아이들이 높은 열성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정서가 불안하고 난폭했던 아이들, 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아이들, 재능이 있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꿈을 포기해야만 했던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치유되어 밝고 씩씩하며,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로 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발굴되어 성장한 음악인재들이 첼리스트 장한나와 함께하는 엡솔루트 클래식Ⅲ에 참여하여 합동연주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유명 콩쿠르에서 수상하기도 하였다.



출처 : <http://cafe.naver.com/dreamorchestra>

〈그림 3-2〉 주한미국대사관 & 드림오케스트라 합동연주회

드림오케스트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강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워크숍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엘 시스템의 성공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오케스트라의 지향점, 교육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저소득가정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보호 및 재능발견, 자존감향상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음악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 <http://cafe.naver.com/dreamorchestra>

〈그림 3-3〉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 강사워크숍

숙명여대도 지난 2010년부터 다문화가정 어린이 오케스트라를 4학기 동안 운영해오고 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예술적 상상력과 감수성을 심어주는 한국판 엘 시스템마로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다문화가정 어린이 오케스트라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혼란을 겪거나 소외당하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음악교육을 통해 정체성을 함양하고 감수성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된 무료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롯데장학재단의 후원을 받고 숙명여대 음악대학 관현악과 전공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진다. 특히 악기별 소수의 그룹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단순한 음악교육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감성 멘토 역할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9월부터 30명 규모의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하였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소외계층은 우선 선발된다. 선발된 학생은 2013년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숙명여대 음악대학에서 수업을 받으며, 방학기간에는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네팔, 중국, 일본, 러시아 출신 등 50여명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거쳐 갔다. 이 오케스트라는 기본적으로 음악교육을 실시하지만 프로 음악가를 배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인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출처 : blog.naver.com/iamsookmyung

〈그림 3-4〉 다문화가정 어린이 오케스트라 중간발표회

제 4 장 방 과 후 문 예 체 교 육 프 로 그 램 운 영 사 례 의 시 사 점



제 4 장

방과후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의 시사점

1. 문예체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21세기는 문화경쟁력을 키워야 하고 문화산업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시대이다. 입시위주의 현 교육환경이 갖는 한계에 공감하고, 스스로 보고 느끼고 배우는 문화감수성이야말로 가장 개성적인 상상력의 기초가 되며, 이것이 문화경쟁력의 밑거름이 된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속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혼재되어 있으며 미래사회의 안정은 이와 같은 이질적 속성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조화롭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질적 속성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문예체 교육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 게다가 개인적 차원에서 문예체 활동은 풍요롭고 만족스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때문에 입시위주 교육체계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으로 문예체 교육을 인식하고, 관련 주체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 방과후학교 운영권은 학교장 재량에 달려있어 지역 간, 학교 간 격차가 크다. 물론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와의 조화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교과위주, 입시위주인 교육환경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에 따라서는 문예체 교육도 하나의 스펙쌓기로 전략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미래사회는 문화감수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문예체 교육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개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제 감수성 및 창의성 개발을 위한 문예체 교육의 성과를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문예체 교육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때이다. 자신의 느낌으로 문화감수성을 익히고 증진시키며, 창조적 상상력을 배양할 수 있는 문화의 현장, 문화의 내부, 문화의 질 속에서 깨우침이 있도록 하는 문화교육의 틀을 세워야 한다.

최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안에서 예술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이운진, 2011, p 20). 특히나 입시위주로 교과과정이 운영되고, 방과후교육마저도 교과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문예체 교육에 대한 공공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문예체 교육은 문화자본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며, 학교교육을 통한 문예체 교육 역시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따라서 공공이 문예체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형성된 문화자본은 사회자본 형성에도 도움을 주어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예체 교육의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문화재단이나 구로문화재단의 사례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돌봄교실 대상 창의예술교육 사업이나 교과와 연계한 호기심예술학교, 구로문화재단의 다문화제교 교육 연극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연극 등의 효과는 현장에서 입증되었다. 문화예술 소외계층 대상의 교육확대와 사회적 이슈 등을 소재로 한 문예체 교육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확대시켜야 한다. 재단의 입장에서도 교육의 직접적인 효과로 학생들의 변화를 손꼽고 있으며, 이들의 성장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확실한 전망은 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등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문화재단의 교육사업들은 수요가 있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적 사업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교육의 효과측정을 통한 사업 운영도 의의가 있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다양한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단기적인 사업의 성과 측정에 앞서 문예체 교육의 긍정적인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은 엘 시스템의 사례에서 보았듯 이미 공론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2. 문예체 교육자원과 방과후 교육 매칭시스템 운영

문예체 교육의 핵심은 다양성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문예체 교육은 전문성을 특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교과과정에서 포괄하기 힘든 측면들을 내포하고 있어, 방과후학교에서는 외부강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문예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일반 학원의 강습과 유사한 체제로 운영되기 쉽다는 한계가 있다. 방과후 교육은 공교육 체계 내에서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문예체 교육은 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서울문화재단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최근에는 개별 영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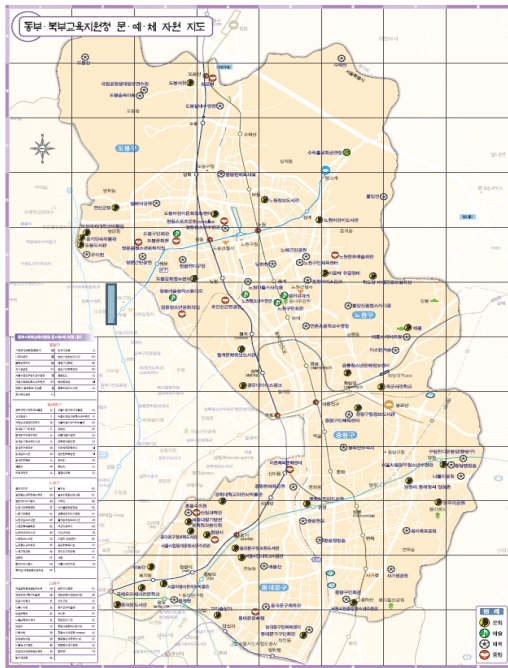
넘어서는 통합예술교육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대안적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과 방과후 교육이 접목된다면, 방과후 문예체 교육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외부에서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이 방과후 교육으로 흡수되기에는 많은 장애들이 존재한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들을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인적자원을 방과후 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지역사회의 다른 교육자원과 큰 거리를 두고 있다. 이는 학교 측이 안전문제나 위생문제 등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예체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기관들을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공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 제공과 연계 시스템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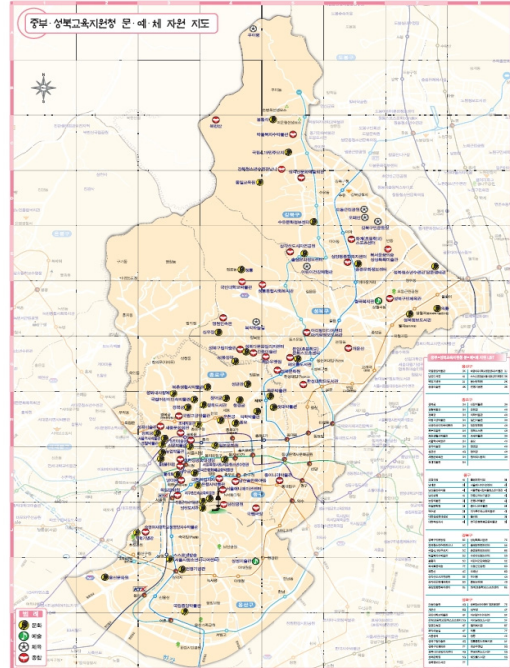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주5일수업제를 맞아 서울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의 문화, 예술, 체육 자원지도를 작성하였다. 즉 서울시 전역을 동부북부/ 서부강서/남부강남동작/중부성북/강동성동 지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더하여 정부기관의 문예체 자원 색인을 마련하여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자원지도는 문화, 예술, 체육, 종합 등 4대 카테고리 분류하여 이들 자원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색인마련에서 그치지 말고 공공은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교육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칭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인력 활용을 위해 지역에서 인력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민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공공과의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 내에서 보다 안전하게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원시스템은 각 구청이 일차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서울시는 기술적, 행정적 측면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청은 지역의 문예체 교육 자원 및 인력 정보를 수집하고 각 자원에 대해 검증하며, 검증된 자원에 대해서는 자치구 차원에서 보증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역여건에 따른 세밀한 매칭 시스템을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구청이 정보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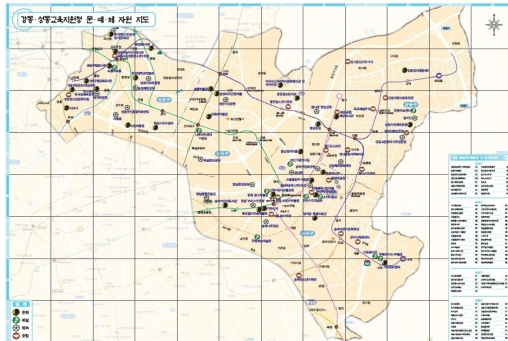
▶동부·북부교육지원청 문예체 자원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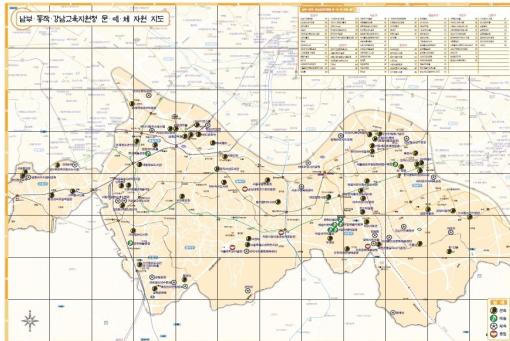
▶중부·성북교육지원청 문예체 자원지도



▶강동·성동교육지원청 문예체 자원지도



▶남부·동작·강남교육지원청 문예체 자원지도



▶서부·강서교육지원청 문예체 자원지도



3.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제언

수혜자를 고려한 프로그램 구성 필요

방과후학교 체육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학년 구분 없이 조직·편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생은 신체발달 과정상 학년차가 심하며, 이로 인해 학년이 다른 학생이 동일 프로그램 참여 시 흥미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방과후학교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 및 용구 확보수준은 부족하지 않았으며, 특히 외부강사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체육프로그램이 열린 교육의 이념 아래 사회체육과 연계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쉽게 적용이 가능한 초등용 방과후학교 체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김보숙, 2009 ;72),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당국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문제제 프로그램도 다양한 경험이 중요한 초등학교 초학년은 수업시간표의 구성이 학생보다 학교나 외부강사들 중심으로 짜여 있어, 결국 학생들은 원하는 강좌와 시간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학교 밖 학원을 통해 배움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수요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겠지만, 교육 수요는 다양한 공급이 있을 때 보다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효율성을 강조하기보다 학생들에게 보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안전권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들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들은 매우 민감한 상태로이므로 교사들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움직일 수가 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책임소재가 분명한 사업에서만 교사들의 인솔이 가능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동의를 구할 수가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 없이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은 교사들에게 무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종 지원정책 수립 시 학생의 안전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다양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사업주체들을 통합할 수 있는 창구 마련

현재 방과후학교 관련 지원예산은 교과부,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 구청 등 각기 다른 지원주체에서 배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학교에 직접 예산을 제공하고, 교육청은 코디네이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구청은 관련된 정책사업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예산지원처가 많다는 것은 긍정적이나, 비슷비슷한 사업 예산이 일부 항목의 차이를 두고 지원되고 있어 학교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각종 예산의 수혜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담당교사가 바뀌게 될 경우 후속년도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나 지자체가 각종 정부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행정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예산지원만 하고 있는 입장에서 행정지원에 노하우가 많은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구 단위에서 큰 범주의 사업을 정하고, 관련 예산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현재 일부 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실은 지자체 사업과 예산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지역의 각종 자원과의 연계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며, 예산 활용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방과후학교 강사 및 돌봄교실 강사 인력풀 운영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활동 중인 강사 리스트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어, 새로운 강사의 수급이 필요할 경우 일선학교들은 강사의 신원조회, 학력증명, 면접 등의 행정적인 절차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물론 인터뷰 과정 중에서 학교마다 여건이 다른데 모든 강사의 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반문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신원조회, 학력증명, 신체검사 등과 관련한 안전한 인력뱅크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또한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필요에 의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서울시 공공기관별로 다양한 인력풀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교과 과정 강사는 교육청에서, 문예체 관련 강사는 서울문화재단에서, 기타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 풀은 구청 등에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수준에 맞는 강사선정은 학교의 몫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보완해가는 인력풀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력풀 구축 후에 현재 각 지역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초등학교 강사 연수제도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서울시 초등학교에 파견되는 강사의 질을 공공에서 보장·인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상황을 고려한 지속적인 정책지원

학교의 1년 교과과정 검토는 매년 11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모든 일정이 다 잡히는 상황이다. 2월에 공시되는 공공사업은 학교의 참여를 끌어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예산배분 시점인 연초에 정책사업 공모가 나면, 교사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엔 시점이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어느 학기건 학기시작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교사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과과정 속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어야 학교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책사업 수립 시 사업성과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최소 1~2년간의 시범사업운영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사업의지를 보여야 학교에서 관련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은 사업시작 2~3년차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견해이다. 강남구청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초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의지를 일선학교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연간계획에 미리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문화재단 창의예술교육 돌봄교실 지원사업(2006년 시작, 2012년 참여 초등학교 51.6%)도 지속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가며 일선학교의 관심을 이끌어냈기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재정비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2007년 교과부에 의해 지역연계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큰 의미가 없어 그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현재는 방과후학교 관련 문의전화를 받는 콜센터의 역할만 하고 있다. 인력풀의 경우 온라인에 게시된 강사의 정보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학교와 방과후학교를 연계하는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 때문에 지원센터의 기능 및 역할 재정비가 필요하다.

인천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우수강사 선별부터 인증, 홍보까지 해주고 있는 우수사례이다. 공주시 방과후지원센터 역시 지역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범사례로 문예체 교육에서도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공주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3년 연속 운영 A 등급 선정
—공주교육지원청, 공주시청 방과후학교운영 모범사례 선정 -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창석)과 공주시(시장 이준원)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주시 방과후학교지원센터가 2012년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계획 공모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고 등급인 A등급으로 선정됐다.

공주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2009년 개소이후 3년 연속 A등급에 선정되며 전국 최고의 방과후학교 운영 모범 운영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교과부로부터 6천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질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공주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는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공모받아 공주시청과 공동운영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기여해왔으며, 수요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왔다. 특히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해 18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95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학교에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주 5일수업제에 따른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토요일에도 다양한 교과, 특기적성,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주교대, 공주대 등과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고, 부족한 문화예술교육부문의 교육을 위해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충남교육연구소, 충남역사박물관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일선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최창석 교육장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들을 활용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력들이 지역교육청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원센터 중에서도 선도적인 부문으로 인정을 받아 전국 최고의 방과후학교 운영기관이라는 결과를 이룩해 낸 것”이라며 “시와 협력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 교육기부 유치노력, 사교육비 경감 노력, 단위학교의 방과후관련 업무경감, 방과후학교의 질 관리 강화,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더욱 높은 수준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 출처 : 대전투데이 2012년 4월 4일자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2006, 「경기 방과후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아동청소년백서」.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아동청소년백서」.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방과후학교 시행 계획」.
- 김보숙, 2009, 「초등 방과후학교 체육프로그램 참여실태」.
- 문화관광부, 2006, 문화향수실태조사.
- 민경훈, 2007,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으로서 ‘방과후학교’를 위한 통합형 음악교육의 수업안 개발」.
- 박은숙, 2008, 「방과후학교의 음악교육활동 실태분석 연구」.
- 보건복지부, 2010, 2009 아동청소년백서.
- 파주시 교육청, 2010, 「초·중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서울시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시보육교사연합회, 2011, 초등 보육(돌봄)교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1,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방과후학교 내실화 지원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주요업무계획.
- 석문주 외, 2011, 「학교 음악예술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예술향유에 대한 실태 및 요구분석」.
- 이종형, 1996, “초등학교 아동의 과외자율 체육활동 실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진, 2011,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이혜숙, 2009, “서울시 방과후학교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SDI 정책리포트.
- 한국교육개발원, 2009,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실태분석 및 활용화 방안」.
- 한국교육개발원, 2009,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매뉴얼」.
- 한국교육개발원, 2009,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워크북」.
-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전수부문.
- 통계청, 2011, 맞벌이가구 및 경력단절여성 통계 집계 결과.

서울연 2012-PR-10

서울시 초등학교 방과후 문예체 교육 프로그램 사례

발 행 인 이 창 현

발 행 일 2012년 8월 31일

발 행 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25

비매품 ISBN 978-89-8052-923-0 9333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